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지역의
주민참여 의식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관광개발학과

문 용 철

2014년 8월



濟州 綠色農村體驗마을 事業地域의 住民參與 意識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崔 容 福

文 鏞 喆

이 論文을 觀光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4 年 8 月

文鏞喆의 觀光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김 하 순



委 員

김 재 호



委 員

최 용 복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2014 年 8 月



A Study on Citizen Participation Awareness of
Green Village Project Area in Jeju

Yong - Chul Moon

(Supervised by professor Yong - Bok Choi)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Tourism

2014. 8

Department of Tourism Development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제 1장 서론	1
제 1절 문제 제기	1
제 2절 연구의 목적	4
제 3절 연구의 방법	5
1. 연구의 흐름	5
2. 연구의 모형	6
3. 연구의 가설	8
4. 연구조사 방법	9
제 2장 이론적 배경과 연구동향	11
제 1절 농촌관광의 개념과 녹색농촌체험마을의 현황	11
1. 농촌관광의 개념	11
2. 녹색농촌체험마을의 현황과 내용	22
3. 제주지역 녹색농촌체험마을 현황	25
제 2절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의 주민참여의 개념과 형태	32
1. 주민참여의 개념	32
2. 주민참여의 형태	34
제 3절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의 주민참여의 필요성과 의의	36
1. 주민참여의 필요성	36
2. 주민참여의 의의	39
제 3장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례 지역 현황	43
제 1절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지역 사례	43
1.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현황	43
2.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자원	49
제 2절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지역 사례	54

1.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현황	54
2.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자원	62
제 4장 실증분석	69
제 1절 자료의 분석	69
1. 설문지 구성	69
2. 신뢰도 분석	70
3. 인구 통계별 분석	71
제 2절 주민참여 인식 현황	76
1. 청수리 주민의 참여인식 현황	76
2. 저지리 주민의 참여인식 현황	88
제 3절 가설의 검증	98
1.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주민참여 현황 비교	98
2. 녹색농촌체험마을 인지 정도에 따른 인식 비교	104
3. 녹색농촌체험마을 회의참여 정도에 따른 비교	105
4.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 방안에 따른 인식 비교	105
5.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으로 인한 기대인식 비교	106
6.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참여 및 역할에 따른 인식 비교	107
7. 직책 경험 유무에 따른 사업 참여 정도 비교	107
제 5장 결론	109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109
2. 제언	111
참고 문헌	113
부록: 설문지	116
Abstract	122

표 목 차

<표 2-1> 농촌관광의 국가별 개념	14
<표 2-2> 농촌관광의 각 주체별 역할	21
<표 2-3> 부처별 농촌관광 마을 지정현황 및 내용	23
<표 2-4> 녹색농촌체험마을의 개요	24
<표 2-5> 연도별 사업량과 사업비	24
<표 2-6> 녹색농촌체험마을 연도별 추이	25
<표 2-7> 제주도 녹색농촌체험마을 프로그램 운영현황(2013)	26
<표 2-8> 제주도 녹색농촌체험마을 내장객 현황(2013)	31
<표 2-9> 주민참여의 제약요인	37
<표 2-10> 주민참여의 장·단점	38
<표 3-1> 한경면 청수리 마을 현황	48
<표 3-2> 한경면 저지리 마을현황	58
<표 3-3> 한경면 세대 및 인구 분포	60
<표 3-4> 한경면 농가 및 농업인 현황	61
<표 3-5> 한경면 내 오름 현황	63
<표 4-1> 설문지의 구성	69
<표 4-2> 신뢰도 분석결과	70
<표 4-3> 한경면 청수리 주민의 인구통계적 분석	72
<표 4-4> 한경면 저지리 주민의 인구통계적 분석	74
<표 4-5> 한경면 청수리 마을주민의 주 소득원 및 소득 수준	78
<표 4-6> 한경면 청수리 녹색농촌체험마을에 관한 인식	79
<표 4-7>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의 참여 인식	80
<표 4-8> 한경면 청수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활성화 방안 인식	81
<표 4-9> 한경면 청수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기대 인식	83
<표 4-10> 한경면 청수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참여 및 역할	84
<표 4-11> 한경면 저지리 마을 주민의 주 소득원 및 소득수준	89

<표 4-12> 환경면 저지리 녹색농촌체험마을에 관한 인식	90
<표 4-13> 환경면 저지리 사업과런 마을회의 참여 인식	91
<표 4-14> 환경면 저지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활성화 방안 인식	92
<표 4-15> 환경면 저지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기대 인식	94
<표 4-16> 환경면 저지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참여 및 역할	95
<표 4-17> 연령에 따른 녹색농촌체험마을 인식 차이	99
<표 4-18> 성별에 따른 녹색농촌체험마을 인식 차이	100
<표 4-19> 거주 년수에 따른 녹색농촌체험마을 인식 차이	101
<표 4-20> 직업에 따른 녹색농촌체험마을 인식 차이	102
<표 4-21> 소득에 따른 녹색농촌체험마을 인식 차이	103
<표 4-22> 인지 정도에 따른 청수리·저지리 차이 분석 결과	105
<표 4-23> 회의참여 정도에 따른 청수리·저지리 차이 분석 결과	105
<표 4-24> 활성화 방안에 대한 청수리·저지리 차이 분석 결과	106
<표 4-25> 기대인식 차이에 따른 청수리·저지리 차이 분석 결과	106
<표 4-26> 사업참여 및 역할에 따른 청수리·저지리 차이 분석 결과	107
<표 4-27> 직급 경험에 따른 회의참여 정도 차이 검증 결과	108
<표 4-28> 직급 경험에 따른 회의참여 수준 차이 검증 결과	108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모형	7
[그림 2-1] 제주도 꽃자왈 분포, 제주도 암괴상 아아용암류의 분포 및 암질에 관한 연구(2000)	28
[그림 2-2] 한경면 청수리 꽃자왈 내부(1)	29
[그림 2-3] 한경면 청수리 꽃자왈 내부(2)	29
[그림 3-1] 돛죽은 물 보존상태	46
[그림 3-2] 평화박물관 홈페이지,인터넷자료	50
[그림 3-3] 한경면 청수리 가마오름 지하요새 입구	50
[그림 3-4] 한경면 청수리 가마오름 입구	52
[그림 3-5] 한경면 청수리 가마오름 정상	52
[그림 3-6] 한경면 청수리 수컷돌거북이 박물관 내부(1)	53
[그림 3-7] 한경면 청수리 수컷돌거북이 박물관 내부(2)	54
[그림 3-8] 한경면 저지리 저지오름 입구	64
[그림 3-9] 한경면 저지리 저지오름 정상 입구	64
[그림 3-10] 한경면 저지리 『생각하는 정원』 입구	65
[그림 3-11] 한경면 저지리 『생각하는 정원』 내부	65
[그림 3-12] 한경면 저지리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입구	66
[그림 3-13] 한경면 저지리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안내도	67
[그림 3-14] 한경면 저지리 『방림원』 입구	68
[그림 4-1] 한경면 청수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입구	76
[그림 4-2] 김성민, 블로그 운영사례, cafe.naver.com/jejukul	77
[그림 4-3] 김성민, 쇼핑몰 운영사례	77
[그림 4-4] 한경면 저지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입구	88
[그림 4-5] 고양일, 딸기 체험농장 운영사례	89

제 1장 서론

제 1절 문제제기

우리의 농촌은 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겪으면서 자연스레 소외되고 등한시 되어왔다.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마치 사회의 낙오자가 되는 듯 하였으며 대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에 실패하여 농촌으로 귀향하는 사람은 따뜻한 시선이나 환영보다는 안쓰러움과 동정의 대상이 되곤 하였다. 농업을 생업으로 평생을 살아온 부모님 세대는 자식에게만은 절대 농업을 물려줄 수 없다 하면서 어떻게든 도시로 나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라고 권유하였다. 자식세대는 농촌을 벗어나는 것이 최대의 목표가 되었으며 대도시로 진출할수록 출세의 척도로 가늠되었다. 이는 자연스레 농촌인구의 감소로 이어졌는데 1980년 농가인구수는 1,083만명으로 전체인구의 28.4%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05년에는 343만명으로 전체인구의 7.1%에 해당하여 과거 25년전 농가인구의 32%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감소는 도시와 농촌의 상대소득 격차의 심화가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고려되며, 복지 및 생활여건, 자녀의 교육, 지방도시의 행정구역개편 등에 따라 앞으로 농가인구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농촌은 이미 초고령화 단계에 진입해 있으며 그에 따라 급속한 노동력의 감소와 후계인력의 부족, 품질개선의 부진 등으로 생산력과 소득이 감소되어 농촌의 생활은 더욱 악화되었다.

또한 우리 농촌은 외부적으로도 심각한 위기를 맞았는데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2007년 타결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으로 국내 농업생산 감소액은 발효 후 5년차에 4,465억원, 10년차에 8,958억원, 15년차에 1조361억원으로 추정되며 농업생산액 감소를 토대로 추정한 농업생산자 감소는 5년차에 18,330명, 10년차에 35,450명, 15년차에 41,430명으로 추정 된다(한국농촌경

제연구원, 2007). 이와 같이 우리의 농촌은 인구의 감소, 미국과의 FTA등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이제 우리 농촌은 정부의 정책이나 보조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농촌으로의 도약이 필요하다. 경쟁력 있는 농촌 만들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농촌은 아직 여력이 부족하다. 가장 큰 문제는 농촌의 농가소득 중에서 농업소득이 전체소득중의 48%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농외 소득이 적음을 나타내는데 이는 선진국의 농외 소득이 80%를 상회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5% 이하가 18.4%, 15%가 22.3%, 30%가 31.3%, 31% 이상이 27.9%로 나타나 농외소득 30% 이하가 72.0%를 차지하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외국의 선진국에 비해 농외 소득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농촌이 아직도 농촌관광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반증한다. 우리나라의 농촌이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지속 가능한 농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농외 소득을 외국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이 단순한 식량생산이라는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아닌 도시민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도시에서는 겪어보지 못하는 농촌활동 체험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갖춘 장소로 변화해야 한다.

유럽에서 농촌관광은 오랫동안 농촌의 사회경제적 개발과 재생의 효과적인 촉매제로 여겨져 왔다. 즉 전통적인 농업이 쇠퇴한 원경 농촌지역에 농촌관광은 소득과 고용을 창출하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¹⁾. 우리나라의 농촌관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유사하게 1990년대 이후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특히 전체 관광부문에서 좁은 의미의 마을단위 농촌관광 수요비중은 2007년 2.2%에서 2012년 3.4%, 2017년에는 5.3%로 늘어나며 넓은 의미의 농촌관광 수요비중은 2007년 16.8%에서 2012년 23.4%, 2017년에는 국내관광 총량에서 32.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²⁾.

1) Sharpley, R., 2002, 「Rural tourism and the challenge of tourism diversification: The case of Cyprus, Tourism Management, 23(3), pp.233~244.

2) 박시현 외, 2007, 「농촌관광: 산업화를 위한 과제, [농업전망 20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285.

이러한 농촌관광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이 지속가능하고 자립할 수 있는 농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침체된 농촌경제의 대안을 탐색하고 마을의 자원을 적극 개발하면서 기존의 수동적인 참여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참여방식이 필요하다. 농촌은 타 관광과는 달리 도시민이 지역주민과 체류하고 그들과 접촉하면서 이루어지는 관광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참여가 성공의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00년대 이후 많은 주체들이 주민 참여형 농촌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마을, 산림청의 산촌생태마을 등이 있는데 이는 기존의 일방적인 정부주도의 하향식 개발과는 달리 지역주민 스스로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상향식 개발방식(Bottom-up)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지원과 지역주민 지자체, 전문가 등이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협력적 개발방식이라 할 수 있다. 상향식 개발 방식은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Needs(요구)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인 지역주민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는데 큰 매력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와 청수리로 각각 녹색체험마을에 선정되어 활발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저지리는 유명관광지인 ‘생각하는 정원이’ 나 ‘유리의 성’, 젊은층에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면서 카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낸 ‘무인카페’, 올레길, 오름 등의 개발로 최근 몇 년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저지리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연합에서 추진하는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선정되었는데 저지 오름과 꽃자왈 등 수려한 생태자원, 감귤과 약초를 재배하는 생활양식, 허리굿당·할망당 등 전통문화, 찜수제비와 빙떡 등 전통음식, 저지예술인마을과의 융화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아 선정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요평가항목은 ①(생태환경) 보편적 혹은 특이함에 초점, ②(인물사람) 예술가, 장인, 귀농인 등 특정계층의 분포, ③(공간 생활환경) 마을생활환경과 독특함에 초점, ④(역사전통) 역사나 전통의 계승에 초점, ⑤(공동체) 공동커뮤니티 활동과 시설 등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에서도 저지마을의 가장 아름다운 마을 선정을 계기로, 도내의 마을들이 다양한 교류를 확대하고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

도록 농촌체험마을 육성, 도농 교류 프로그램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수리는 농촌체험관광이나 승마체험, 꽃자왈 탐방 등의 관광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평화박물관의 설립으로 외부인구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청수리 평화마을 리더자들의 리더쉽과 마을주민의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통하여 평화마을 노인복지회관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설립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모금과 참여가 있어 가능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농촌관광개발에 있어 주민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제주지역에서 실제로 활발한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연구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한경면 저지리와 청수리를 사례 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참여가 왜 중요한지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참여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각각의 성과는 어떠한지를 찾아보고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농촌관광개발에 있어 이상적인 지역주민의 참여방안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모범사례를 밝히고자 한다.

제 2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에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효과는 어떠한지를 찾아보고 그 자료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농촌관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정부가 어떠한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지를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되어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와 청수리의 두 마을을 선정하여 두 마을간의 특징과 차이점은 각각 무엇인지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저지리와 청수리 두 마을간의 거리는 불과 2km를 넘지 않으나 현재 두 마을의 개발성과는 눈에 띄게 차이를 나타낸다. 저지리는 많은 박물관과 카페, 숙박시설 및 골프장 등이 설립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 반면 청수리는 불과 2개소의 박물관과 승마 체험소가 설립되었을

뿐이다. 이는 거리라는 요인이 농촌개발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관광개발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가 성공여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전제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의 내용적 범위를 설정하였다.

첫째, 각 지역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진행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 인식 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환경면 청수리와 저지리의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비교 분석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셋째, 각 지역의 주민참여 인식 비교 연구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그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해 본다.

제 3절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흐름

본 연구는 농촌관광 개발 사업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네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 참여형 개발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조사 및 실증조사를 통하여 주민참여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다. 농촌관광과 관련된 연구와 주민참여의 의의와 기능 등에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둘째, 실제 연구의 대상지역인 환경면 저지리와 청수리의 마을의 인구와 관광

자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을의 관광개발현황을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성과를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하여 비교해본다. 실제로 두 마을의 개발성과에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지역개발의 성과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셋째, 두 마을 간의 참여도와 그에 따른 성과를 분석한다. 각 마을의 개발성과에 지역주민의 참여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해보고 그 미치는 정도가 전체 성과의 요인 중에서 얼마만큼의 중요도를 차지하는지를 검토해본다. 각 마을의 성과는 매출액과 방문객수 등의 복합적인 자료를 검토해야 하나 여건상 마을별 방문객수를 성과 지표로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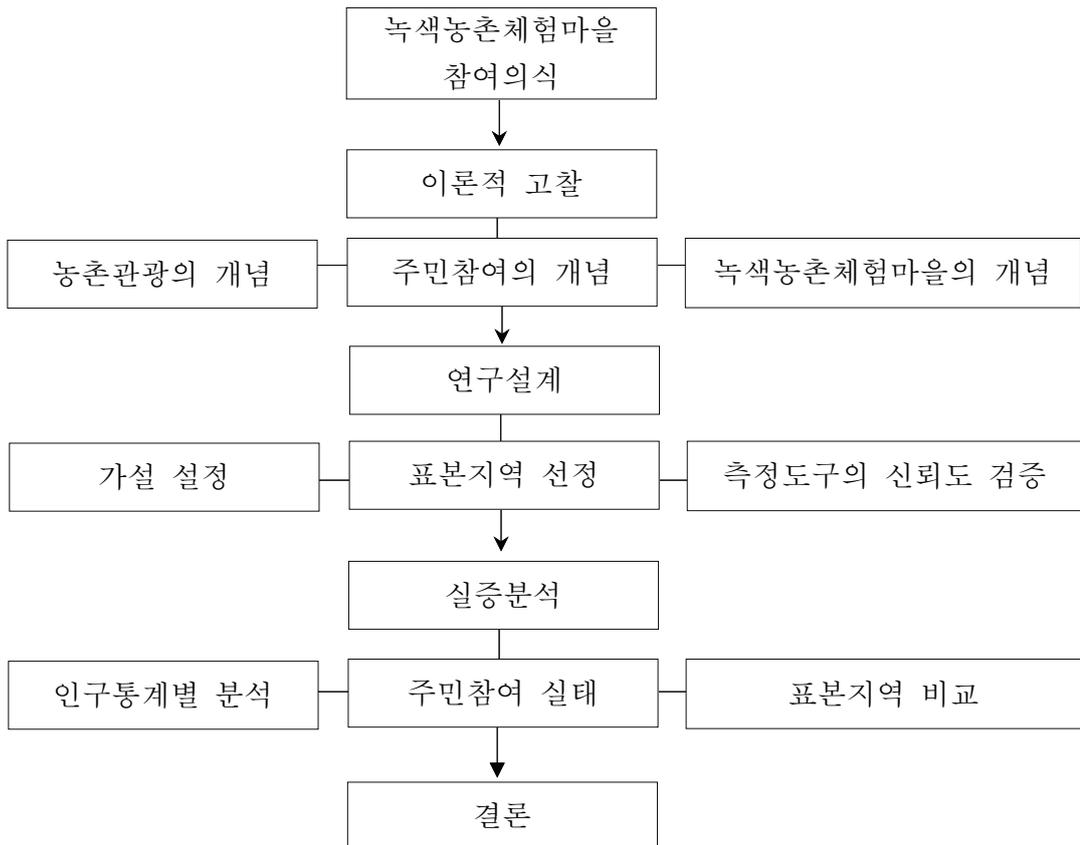
2. 연구의 모형

본 연구는 한경면 청수리와 저지리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비교하여 두 지역 간의 인식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관광에 있어 지역주민의 바람직한 참여상은 무엇인지 고찰해보고 궁극적으로는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의 모색에 있다.

선행된 농촌관광에 대한 연구는 특정 마을을 선정하여 지역주민의 참여 실태와 인식을 바탕으로 연구 되어져 왔으나 두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는 많지 않았다. 특히 제주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농촌관광에 대한 연구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두 지역주민의 인식비교에 관한 선행연구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한경면 청수리와 저지리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을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옷뜨르 권역사업과 더불어 많은 외부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특히 저지리는 꽃자왈, 올레길, 오름, 딸기체험농장 등의 개발로 관광객이 급격히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귀농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단순 재배식 농업이 아닌 체험이라는 상품을 더하여 관광객을 유치하여 농가의 농외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에 반해 청수리는 저지리에

비해 많은 점이 부족하다. 두 마을의 거리는 불과 2km 차이에 불과하며 마을의 자원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농촌관광의 성공요인에는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는 지역주민이 농촌관광에 대해 갖는 인식차이가 성과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각 마을의 지역주민이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에 대한 참여 실태와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참여 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두 마을 주민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에 대한 인지정도를 비교해보며 셋째,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 본다. 넷째, 사업 참여도와 역할에 따른 인식을 비교해보고 다섯째,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에 대한 기대인식을 비교해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의 직책 경험 유무에 따른 사업 참여 정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해 본다. 연구 모형은 [그림 1-1]과 같이 설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모형

3. 연구의 가설

본 연구는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에 위치한 저지리와 청수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비교를 검정한다. 두 마을 지역의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참여 실태와 사업에 대한 인식 차이, 사업 참여 및 역할에 대한 차이를 분석해본다. 이는 두 마을이 현재도 활발하게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고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사업에의 참여의지가 타 지역보다 활발하여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차이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석해 봄으로서 추후 제주지역의 농촌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음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농촌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연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1.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라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2. 녹색농촌체험마을 인지 정도에 따른 두 마을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3.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회의 참여 정도에 따라 두 마을간 차이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4.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 방안 인식에 대해 두 마을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5.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으로 인한 기대인식에 따른 두 마을간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6.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 참여 및 역할에 대해 두 마을간 인식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7. 직책 경험 유무에 따라 사업 참여 정도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이상 가설은 일곱 가지를 설정하였으며 각각에 대한 분석과 검증을 바탕으로 두 마을의 인식차이가 시사하는 점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향후 개선방안과 추진방안을 모색해 본다.

4. 연구조사 방법

본 논문은 그린투어리즘과 농촌관광개발에 관한 국내 문헌을 조사하였고 사례 연구는 문헌연구와 면접,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마을에 관한 자료는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도지회에서 발행한 『환경면 역사문화지』를 참조하였고 마을의 자원은 직접 마을을 돌아다니고 찾아다니면서 사진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사례마을로 지정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면 청수리와 저지리 지역을 대상으로 4월21일(월)부터 5월4일(일)까지 2주간에 걸쳐 실시하였고 총 150부를 배부하여 청수리는 68부, 저지리는 63부를 회수하여 총 131부를 분석하였다.

설문은 자기 기입식(self-administered)으로 제시되었으며 모든 마을 주민이 모일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있어 고령자를 제외한 설문이 가능한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완성하였다. 설문지를 작성하는 동안 간단한 인터뷰도 실시하였으며 농촌관광에 대한 기대와 개선되어야 할 점 및 건의 사항 등에 대한 의견도 수집하였다.

전체적인 설문과 분석 기법은 안중현(2008년)의 『농촌관광마을 만들기와 주민참여』(광양시 신촌마을과 장흥군 진목 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를 원용하였다. 2주간에 걸쳐 실시된 설문조사를 통해 양적 데이터를 확보하였고 질적 데이터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위원장님과 마을 이장님, 청년회장님을 비롯한 부녀회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을 수 있었고 설문지 분석은 SPSS 18.0K를 이용하여 크롬바흐 알파(Cronbach's Alpha)계수를 측정하여 신뢰도를 분석하였으며 t-test, Anova분석을 통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에 대한 마을별, 인구 통계별 인식비교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두 마을 주민의 인식차이가 시사하는 점은 무엇이며 그에 따라 마을 주민이 향후 어떤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한계로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으로 인한 성과는 방문객수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방문객수는 제주도청 공개 자료를 참조 하였으며 또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나 선택 속성 등의 연구가 병행되어야 했으나 시간 여건상 실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실제 마을의 회의나 토론허장에 직접 참가하여 의견도 나눠보고 실제로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알아봐야 했으나 여건상 실시하지 못하였다. 다만 설문 도중 형식적인 설문응답 요청에 그치지 않고 간단한 질의 응답과 인터뷰 등을 통해 실제 지역주민들이 농촌관광 사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참조 할 수 있었다.

제 2장 이론적 배경과 연구동향

제 1절 농촌관광의 개념과 녹색농촌체험마을의 현황

1. 농촌관광의 개념

1) 그린투어리즘의 개념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이라는 용어는 국가와 지역, 연구자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용어 또한 각각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그린투어리즘과 같은 의미의 내용을 갖는 용어로 농촌관광(rural tourism), 연성관광(soft tourism),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 인간적인 관광(human tourism), 자연관광(nature tourism), 책임 있는 관광(responsible tourism), 생태관광(eco-tourism), 지속 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등이 다양하게 혼용되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그린투어리즘이라고 할 경우 ‘그린(green)’은 단지 ‘푸름’이나 ‘자연’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모든 생명이 존중, 자연의 적정이용, 다양함의 평가, 또는 모든 생물이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인식이 ‘그린’이라는 개념의 바탕을 이룬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에서 여러 가지 대상의 이해, 자기행동의 도덕성, 나아가 문체의 접근방법까지, 말하자면 한 사람의 인생관이나 생활양식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치관, 자세, 규범에 따라 농촌지역과 도시를 즐기는 것이라고 정의한다³⁾.

이후석(2001)은 농촌이나 산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활용한 관광, 결국 농촌이나 산촌의 주민들이 서비스가 주체가 되고 농촌이나 산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이나 생활문화를 살려서 도시 주민을 받아들이는 한편, 도시 주민 쪽에

3) 강신겸,김정연,1997, 「녹색관광」,pp.27~28.

서 보면 농가가 운영하는 민박에 머물러 농촌이나 산촌의 자연이나 일상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농촌이나 산촌 주민과의 교류를 도모하면서 느긋하게 그곳에 체재하고 심신의 활력을 회복하려는 여가활동이라고 하였다.

그린 투어리즘(green tourism)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대중관광에 관하여 부정적인 것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 대안관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중관광(mass tourism)이 대규모 리조트나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외지의 자본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을 진흥시키는 형태라면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은 대중 관광으로부터 나타나는 다양한 환경파괴나 생태의 붕괴, 경관의 훼손 등 부정적인 요소를 줄이기 위한 관광행태를 말한다. 즉 대안관광은 외부의 자본이나 관광지 개발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는 경성관광(hard tourism)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내발적으로 추진하는 연성관광(soft tourism)을 의미 한다⁴⁾.

이러한 대안관광은 대규모 관광과 연관되지 않고 비 도시지역에 확산되어 있으며 소규모와 저밀도가 필수적이며 주로 평균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비교적 고소득층의 특별 관심그룹의 요구에 부합된다. 대중관광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하는 것을 시도함으로써 여가에서 사람들이 환경과 사회, 문화적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점이 대안관광의 특징이다⁵⁾.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의 다음의 세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관광을 위한 인위적 시설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농촌지역사회의 인문, 생태 및 자연환경을 관광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제까지 관광농업이나 농촌관광은 도시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에 숙박과 위락시설 중심의 관광시설을 설치하는데 주력해 왔다. 따라서 관광농원이 도시의 대중적 관광의 아류를 지향한다는 비판도 나타나고 있다.

둘째, 그린투어리즘은 도시 관광객이 농촌을 방문하여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인간적이 교류를 바탕으로 농업과 농촌문화를 체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본 농림성의 그린투어리즘 연구회는 1992년도 보고서에서 ‘풍요로운 자연을 가진 농산어촌에서 그 지역의 자연과 문화,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는 체류형

4) 이정록, 안중현(2005), 『그린투어리즘과 관광마을 만들기:이론과 실제』, pp.200.

5) 이후석(2001), 「생태관광」, p.31~32

여가활동’ 이라고 그린투어리즘을 정의하고 있다. 관광농원이 농원 내의 위락 시설과 숙박 및 음식물 판매 중심이라면 그린투어리즘은 지역의 자연경관과 생태환경, 전통문화, 그리고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체험하면서 사람들 간의 만남을 중시하는 관광행태가 된다.

셋째, 그린투어리즘은 기본적으로 농촌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깨끗한 환경,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서적 풍요로움과 문화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행태이므로 지역 가꾸기와 병행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그린투어리즘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마을이나 지역을 이와 같은 수준으로 가꾸는 노력이 병행되어야한다⁶⁾.

우리나라 농림부는 그린투어리즘을 ‘농산촌의 풍성하고 깨끗한 자연경관과 지역의 전통문화·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하는 도시민과 농산촌 주민간의 체류형 교류활동’ 으로 정의하고 그린투어리즘을 통하여 도시민에게 휴식·휴양과 새로운 체험의 공간을 제공하고 농산촌에는 농산물 판매, 가공특산물 생산·판매, 관광·음식물 판매 등의 소득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⁷⁾.

2) 농촌관광의 개념

농촌관광이란 도시사람들이 농원, 목장, 수산 등의 장소를 방문하여 자연을 즐기면서 과실을 따기도 하고 토지를 경작하기도 하는 레크리에이션을 할 수도 있고 목장과 시설을 보면서 자연 속에서 여가시간을 지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관광은 농업과 여행업을 결합 시킨 것으로 시골경관과 농촌공간을 이용하여 여행객들로 하여금 여행, 휴식, 체험, 구매를 하도록 하는 새로운 농업경영 형태로서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등의 광범위한 농업자원을 기초로 하여 개발한 여행상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관광은 농촌 공간, 농촌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을 포괄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농업생산, 농업생태 및 농촌생활을 하나로 패키징화한 농촌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⁸⁾.

6) 조록환,2003, 『농촌관광사업 지역의 사회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11~13.

7) 농림부,2001,농외소득증대 중장기 추진계획, p.26

8) 곽행구.시영선, 「전남지역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광주전남발전연구원,2008,p7.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농업관광을 협의의 의미로는 농업을 관광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관광형태, 관광의 의미로는 농림어업과 같은 1차 산업을 관광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관광형태로 정의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자연환경과 지역특산물을 활용하여 농촌관광시설, 판매시설, 체험, 관찰시설, 편익, 휴양 시설 등을 갖추고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별 농촌관광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표 2-1> 농촌관광의 국가별 개념

구분	개념
유럽	농산어촌 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최소의 물리적 변형을 시도하여 농촌지역을 도시민의 관광수요에 대응하게 하는 관광활동
일본	농어촌 지역에서 자연,문화,사람과의 교류를 통하여 즐거움을 추구하는 체재형 관광활동으로서 주말농장이나 관광농장에서 농사활동 및 여가 활동을 하거나 농산어촌 지역에서 하이킹, 테니스, 캠핑, 사이클링, 감상, 채집 등의 활동이 행해짐
한국	법적 개념: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 전시관, 자연학습과 지역특산물 판매, 체육 휴양 시설등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거나 숙박,음식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활동 일반적 개념:농어촌 지역에서 환경보전과 연계한 농어민의 재정자립구축을 위해 행해지는 모든 관광활동
중국	농촌관광은 농업관광이다. 즉 농업문화 경치, 농업 생태환경, 농사생산활동 그리고 전통적인 민속 풍습으로 자원의 관상, 고찰, 공부, 참여, 오락, 쇼핑, 휴가 등을 서로 융합하는 관광활동이다

자료:농어촌 관광개발 활성화 방안연구, 한국관광공사(2008)

농촌관광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와 이론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농촌관광은 세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⁹⁾.

첫째, 관광목적지로서 농촌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관광형태는 보는 관광에서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관광으로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관광목적지도

9)류선무, 「관광농업연구」,박산출판사,2007,p23

기존의 리조트나 관광지를 벗어나 농촌, 문화유적지, 발길이 닿지 않는 오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농가에서 채류하면서 무공해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고 수확하거나 농촌지역의 문화와 전원생활을 체험하는 농촌관광은 관광목적지를 다양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이라는 점이다. 농촌관광은 대규모 외부자본에 의해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주민들 자신이기 때문에 소득의 외부유출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독특한 관광 상품을 제공하고 관광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고유한 문화와 자원을 보존하고 쾌적한 환경을 가꾸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셋째, 농촌지역 활성화의 새로운 수단으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한국의 농촌은 도시화, 공업화로 인하여 노동력의 유출과 노령화를 초래하였으며 1990년대 들어와 농산물의 가격불안정, 농수산물 시장의 국제개방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광객을 위해 농가민박과 향토요리, 특산물의 개발,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그 지역의 독특한 생활과 문화를 자원으로 농업지역의 활로를 찾을 수 있다.

3) 농촌관광의 유형

고병갑(2007)은 농촌관광의 유형을 농촌마케팅형과 농촌경관 휴양단지형, 생태문화관광 및 유양자원을 활용한 전통 리조트형, 역사·문화체험 민속촌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¹⁰⁾.

(1) 농촌마케팅형

현재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촌관광 유형으로서 농촌지역의 자연환경 보존과 마을 가꾸기 등과 함께 지역산업을 통한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도시민들의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욕구와 시골지역의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농촌마케팅의 유형은 운영방법으로는 각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및 지역 특산물 생산이 농촌개발의 핵

10) 고병갑(2007), 「농촌관광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논문, p21

심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농촌관광은 친환경농산물의 홍보, 체험을 통한 판매 촉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수요증가와 시장규모의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농촌관광지역에 체험 상품형으로 적용 가능하다.

(2) 농촌경관 휴양단지형

지역의 경관과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연계한 경관 상품형 농촌관광은 농촌 지역 고유의 토속적인 자연환경과 더불어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산물, 경관 등의 상품화를 통하여 소득증대를 추구하는 농촌관광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유형은 지역특산물 판매, 지역홍보,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지역산업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즉 특산물이나 주요 경관 어메니티의 개발을 통한 전국적인 인지도 상승이 농촌관광을 통한 부가소득으로 연결 될 수 있는 유형이다.

(3) 생태문화관광 및 휴양자원을 활용한 전통 리조트형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의 공통적인 유형으로서 농촌지역 고유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농촌지역의 생활체험, 농어업체험, 농가민박과 함께 지역 유적지, 명승지 등을 패키지로 한 농촌관광 상품을 제공하는 형태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은 모내기, 벼베기, 고추따기 및 어로체험, 갯벌체험 등과 같은 농어업 체험, 인근 사찰 혹은 호수(뉘시)등과 같은 휴양자원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른 유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득창출 효과는 미흡하지만 최소의 투자비용으로 지역경관 마케팅과 농가의 부가소득 창출이 가능하며 농촌 지역 기반시설 정비라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생태 학습형 관광도 장기적으로는 친환경농업체험 유형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더불어 다양한 주변 명승지등의 볼거리 개발을 통해 고부가 가치 소득창출 산업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역사·문화체험 민속촌형

역사 전통적으로 특성화된 지역에서 역사체험, 산촌체험, 예절체험 등을 통해서 전통문화의 계승 및 보전 역할을 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농촌관광 유형은 농촌지역에 산재한 지역역사화 문화를 효과적으로 보존

전달할 수 있으며 지역이미지 홍보와 체험 활동을 통하여 역사문화 자원을 조화롭게 개발 할 수 있는 형태이다. 타 유형과 달리 농업체험보다는 농촌 정주 공간 체험이 중심인 형태로서 전통문화 체험관광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은 과소화된 농촌 지역에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기능과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지역의 전통 역사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4) 농촌관광마을 사업의 특징

정부의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관광마을은 농촌의 경관, 역사, 문화, 자원, 생활, 산업을 특징으로 도시민과 농촌 주민들 간의 체류형 교류활동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따라서 여가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농촌관광마을의 육성을 받아들이고 있다.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체험공간과 편안히 휴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농촌에는 농산물 판매(1차 산업), 가공 산업(2차 산업), 숙박·음식물 서비스(3차 산업)등 소득원을 제공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러한 농촌관광마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¹¹⁾.

• 마을단위 대상사업

농촌관광마을은 마을단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농촌관광마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단위가 마을이다. 정책이 거시적인 접근이나 포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시적이면서 보다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발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취약지구 개발계획, 취약구조개선 기본계획, 문화마을 조성계획 등이 대부분 정주기반을 정비하는 계획이었으나 마을 단위의 사업은 기존 마을 단위 정비 사업을 관광목적에 맞게 변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²⁾.

마을 단위에 의해 이루어진 농촌관광마을은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11) 정현욱 외, 2002, 「농촌개발을 위한 그린투어리즘과 지방정부의 역할」,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4권 제4호

12) 강신겸, 2002, 「마을단위 녹색관광개발의 추진과 과제」, 관광농업연구, 한국농촌관광학회, 제9권 제1호, pp.118~137.

다양한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단위들인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 시민단체 등이 마을개발에 직·간접적인 참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관광에 대한 잠재적인 가능성을 더욱 확대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투자와 토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업비를 일괄 보조함으로서 마을 특성에 맞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추진이 용이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큰 변화이다.

- 주민협력의 중요성

농촌관광마을은 주민협력의 관계를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농촌관광마을을 추진하는 각 부처가 마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요구하였던 것이며 또한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전체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마을 주민들 간 그리고 인근 주민들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다. 관계의 형성은 마을주민을 구심체로 하여 관련 참여 기관, 단체 등과 인근 주민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을 중심으로 협의체, 추진위원회 등의 구성을 통해 상호 의견을 교류하고 건전한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요구하고 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투입된 시설이나 예산, 체험프로그램은 정부가 직·간접적인 개입을 통해 마을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마을 주민들의 직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업의 지원여부에 대한 결정을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태도와 노력의 정도에 따라 재평가하겠다는 입장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농촌관광마을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 정부의 각 부처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방향은 바로 체험프로그램이다. 실패한 관광농원이 경우는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나 관리 그리고 운영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체험 프로그램은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접근되고 개발될 것이나 공통적인 것은 마을 상황이나 특성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개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외의 실천사례, 마을에 대한 경영기법과 리더십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프로

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 농촌자원의 활용

농촌관광마을은 농촌자원의 활용을 통한 상품화를 촉진한다. 농촌관광마을의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는 바로 농촌이 지니고 있는 고유하고 독특한 자원이다. 농촌자원은 농촌경관, 자연, 문화, 유적지, 설화, 이야기, 놀이, 생활방식 등을 말한다. 이러한 농촌자원으로 농촌관광마을을 형성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확대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농촌자원을 활용 정도에 따라 마을의 모습이나 이미지가 새롭게 설정되고 이것을 통해 관광객의 증가가 기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촌자원이 보전이나 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독특하고 차별화된 상품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정부는 각 부처는 이를 통해 테마마을, 농촌전통마을, 친환경 자연생태마을 등의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를 이끌어 내어 경쟁력 있는 농촌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의 표본지역인 청수리와 저지리는 각각 50만평 규모의 꽃자왈 체험 프로그램과 농촌숙박체험, 오름 및 올레길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청수리는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의 주둔지였던 진지 동굴 및 평화박물관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농촌관광마을은 공모방식을 통해 마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¹³⁾. 마을에서부터 공모신청을 받은 후 시, 군에서 접수 후 중앙부처에서 평가하여 심사위원들의 타당성 조사와 현장 방문을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는 공모방식을 취함으로써 일선 지방 정부들 간 또는 마을 간의 긍정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농촌관광마을이 조성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하드웨어는 사업모델제시를 위한 시범마을 조성을 중심으로 유관사업을 연계하되 개인이 아니라 지역이나 마을,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13) 강신겸(2002),op.cit., pp.118~137

- 테마 중심의 개발

농촌관광마을은 테마 중심의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 마을이 지니고 있는 농촌 자원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그 마을을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이미지화 할 수 있는 마을 테마를 개발한다. 테마는 소재가 있고 이 소재를 바탕으로 이야기,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등이 만들어 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마을마다 지역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테마를 개발하여 관광객의 방문욕구를 자극하게 함으로서 지속적인 마을의 이미지를 고정화하여 농촌의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정부는 테마 개발을 농촌관광마을 만들기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다.

- 정책 연계의 필요성

농촌관광마을은 정책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정책이 그린투어리즘이라는 새로운 정책으로 인하여 중단되거나 예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정책연계를 적극 시도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의 관광개발기본계획이나 교육인적자원부의 도·농간 교류체험학습 등의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정책과도 긴밀한 업무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실패를 줄이고 모든 정부 단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농촌관광마을 만들기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¹⁴⁾.

5) 농촌관광마을 사업의 관련주체와 역할

농촌관광마을의 성공적인 조성은 무엇보다도 농촌관광마을을 추진하는 조직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농촌관광마을의 주체가 지역주민이어야 한다는 것이 기존 관광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체인 지역주민만이 아니라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여행사 및 방문객이 협력하는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농촌관광마을을 추진하는 중심 주체는 마을주민이 되지만 지속 가능한 농촌관광을 유지시켜주는 관련주체가 있다. 관광활동을 즐기고 학습하는 관광객, 이를 사업으로 하는 여행사, 경관보전 및 농촌컨설팅에 관심이 많은 연구자,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관련주체가 있어 이들 각각의 역할과 협력

14) 정현욱 외(2002), op.cit., 재인용

을 통하여 상호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비로소 사업으로서의 농촌관광마을이 지속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 표 2-2> 농촌관광의 각 주체별 역할

관련주체	역할
지역추진조직	-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의 이념 확립 - 지역주민 조성, 자원조사, 프로그램 개발 - 타 관련주체와의 조정, 정보발신 등
지역주민	- 자원보전에 협력 - 프로그램 제공에 협력, 가이드 등으로 참가 등
여행업자	- 프로그램 개발에 협력 - 여행상품 증진, 여행서비스의 제공 - 타 지역정보의 제공 등
조사연구기관	- 자원조사, 자원관리에 관한 제언 - 조사연구 협력 - 프로그램 개발에 협력 등
지방공공단체	- 재정적인 면에서 지원 - 지역활성화 시책의 일환 - 제도면(조례 등)에서 지원 - 인접 읍·면지역 조정 - 관련주체의 조정 등
국가	- 지속 가능한 농촌관광 추진의 체계(제도) 제공 - 자원관리, 조사연구지원 등
관광객	- 자원보호, 자금지원 - 주위에 대한 계몽 등

자료:최성애,2001, 「지속 가능한 어촌관광에 관한 고찰」, 해양수산,제 188호, pp.51 재인용

이와 같이 농촌관광마을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관련주체로서 마을주민, 관광객 및 내방객, 여행사, 연구기관 및 행정 등을 들 수 있고 더불어 마을주민과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도·농 교류조직을 들 수 있다. 이들 각 주체는 각각의 역할을 통하여 주체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데 이들의 역할을 정리해 보면 <표 2-2>와 같다. 민간주체는 주로 농촌관광의 추진을 실행하는 역할, 행정은 그것을 재

정, 제도, 인적 자원 등의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¹⁵⁾.

2. 녹색농촌체험마을의 현황 및 내용

농촌관광마을은 도시민에게 휴식과 휴양을 제공하고 도시민들이 체험해보지 못한 농촌이라는 공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농산물판매, 가공특산물 생산·판매, 관광·음식물 판매 등 소득기회를 제공하여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과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 등이 있다.

본 연구의 사례지역으로는 한경면 저지리와 청수리를 선정하였는데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저지리는 녹색농촌체험마을외에 정보화 마을로 선정되기도 하여 그 시너지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 즉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외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농업인과 농촌마을의 사업추진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은 <표 2-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주 5일제로 인한 도시민들의 여가 생활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관광에 대한 욕구를 농촌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데서 시작한 농촌관광의 한 형태로서 농업·농촌 기본법 제 38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제 2항과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의한 특별법 제 35조,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 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제 1항에 근거하여 농림부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친환경농업, 자연경관,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촌관광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농가의 소득 향상을 통한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목적을 둔다.

15) 최성애, 2001, 「지속 가능한 어촌관광에 관한 고찰」, 해양수산, 제 188호, pp.50~51

<표 2-3> 부처별 농촌관광 마을 지정현황 및 주요내용

구분	사업명	배경 및 목적	기간 및 예산	내용 및 방법
농림부/농촌진흥과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기반시설지원 도시민유치(도농교류)	2002~2013/805개 1년/2억 국비50,지방비50 -공모방식	농촌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조성지원 컨설팅,설계비 교육훈련,홍보비
농촌진흥청/농촌지원과	농촌전통테마마을	전통문화발굴/정승 농촌생활의활성화 도농문화교류	2002~2010/160개 2년/2억 국비50,지방비50 공모방식	마을별 7가지 자원발굴과 컨설팅 농업/농촌 교육.체험시설
행정안전부/지역진흥과	아름다운마을가꾸기시범사업	농어촌의테마개발 농어민 소득증대 도시민 농촌체험	2001 2년/10억 공모방식	전통농촌형, 생태 녹생관광형,21세기 선도형 테마별 기반시설
행정안전부/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지역공동체 복원 및 형성 지역특화브랜드 창출	2006~/총 47개 국 가지정 (30개:3년 /20억,17개:3년/6 억) 공모방식	지역기반시설 시간.공간.관계 차 원의 마을 만들기 7가지 요소를 통 한 커뮤니티 운동
산림청/산림자원과	산촌생태마을(산촌종합개발)	산림휴양지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 산촌주민 생활환 경 개선	1995~2007/3개 2년/14억 국비70억,지방비30 억 (선)대상지역	산촌생활 기반시 설 주택개량 등 생활 환경 개선 소득원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과	문화역사마을가꾸기	문화.역사적 소 재를 발굴.육성 하여 관광자원화 자생력 있는 마 을	2004~2009/13개 마을 3~4년/30억 기금20억,지방비10 억	문화.역사체험 프 로그램 개발.운영 마을체험시설 마을기반.편의시 설(마을회관)
문화체육관광부/녹생관광과	슬로시티관광자원화	한국형 슬로시티 (느림과 상생) 관광자원화	2010~2011/6개 마 을 2년 슬로시티 인증지역	마을기반시설 관광체험프로그램 브랜드 강화 주민역량강화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전통문화마을(시범문화마을)	향토(전통)문화 원형보전.계승 전통문화 활성화	1990~1998/37개 마을	마을기반시설,편 의시설(문화회관) 전통가옥복원.보 수

자료:문화관광연구원(2005),향토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정책사업 추진방안 보고서에서

실질적으로 농촌관광마을에 방문한 총 방문객은 2002년 174,081명에서 2007년 2,252,471명으로 연평균 66.9%의 증가율을 보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주 5일 근무제의 확대 실시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가, 관광선호도의 변화, 국민소득의 증가 등이 그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구본기·손은호, 2006).

<표 2-4> 녹색농촌체험마을의 개요

구분	내용
주무부처	농림부(농촌정책국 농촌진흥과)
사업계획기간	2002년~2013년
전체 사업량	총 805개 마을
단위 사업기간	1년
사업비	1개 마을당 2억원(국고 50%,지방비50%)
근거법령	-농업농촌 기본법 제 38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자료:문화관광연구원(2005),정부부처간 관광개발사업 협력체계 구축방안 보고서에서 인용

<표 2-5> 연도별 사업량과 사업비

(단위:백만원)

구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 2013	
사업량(마을)	805	18	26	32	47	727	
사업비	계	170,000	36,000	5,200	6,400	9,400	145,400
	보조	85,000	1,800	2,600	3,200	4,700	72,700
	지방비	85,000	1,800	2,600	3,200	4,700	72,700

자료:농림부(2005),농산어촌체험마을사업에 관한 통합지침 P8에서 재인용

녹색농촌체험마을은 2002년 사업 시작 이후 선정마을 갯수와 방문객 수, 그리고 관광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18개소에서 2007년 274개소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까지 녹색농촌체험마을 850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며 방문객은 2007년 154만명, 매출액은 210 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표 2-6> 녹색농촌체험마을 연도별 추이

(단위:만명/억원)

내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2013
체험마을 조성누계	18	44	76	123	190	274	850
체험마을 방문객수	-	-	93	99	134	154	-
체험마을당 평균 방문객수	-	-	1.22	0.8	0.71	0.56	-
체험마을 관광매출액	-	-	74	111	183	210	-
체험마을당 평균 관광매출액	-	-	0.97	0.9	0.96	0.77	-

자료:이삼 외(2009), 한국농어촌공사, www.welchon.com에서 인용

3. 제주지역 녹색농촌체험마을 현황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한경면 저지리와 청수리를 포함하여 5개 마을이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한경면 낙천리와 명도암은 전통테마마을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특히 낙천리의 아홉굿 테마마을은 방문객이 연간 4만 명에 이를 정도로 제주도내 농촌관련 관광사업에 성공적인 케이스로 평가 받고 있다. 그리고 유수암 마을은 제주공항에서 약 20 km 이내에 위치해 지리적 강점이 있어 년 간 방문객이 16천명을 넘고 있다. 또한 유수암 마을은 2011년 색깔 있는 마을로 선정되어 마을의 다양한 유무형의 색깔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표 2-7>은 제주도 녹색농촌체험마을 및 전통테마마을 사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정리하였다.

<표 2-7> 제주도 녹색농촌체험마을 및 전통테마마을 프로그램 운영현황(2013)

시군명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운영프로그램현황			비고
	마을명	주소	체험프로그램명	체험프로그램 운영기간	체험인원 (명/1회)	
제주시	유수암 마을	유수암리 1892-1	유수암숲이야기	3~10월	30~50	
			네이처프린트	연중	20~100	
			나무곤충만들기	연중	20~100	
			압화체험	연중	20~100	
			천연수제비	연중	20~80	
			천연비누	연중	20~80	
			천연염색	연중	20~80	
			전통초가집줄농기	3~10	20~81	
			돌하르방캐릭터채색	연중	20~82	
			제주계절떡체험	4~6/9~12	20~83	
			두부만들기체험	11~3	20~84	
			고구마캐기	9~10	20~85	
			감귤따기	10~12	20~86	
			감귤잼만들기	11~1	20~87	
			목공체험	연중	10~40	
			한지공예	연중	10~100	
	꽃감 마을	애월읍 소길1길	굴피클만들기체험	연중	40	
			비누만들기체험	연중	50	
			필러비즈체험	연중	50	
			양초만들기	연중	50	
	저지 마을	한경면 저지리 산14-2	딸기체험	12월~익년5월	200	
			감귤따기체험	11월~익년 2월	100	
			보리빵꾸기체험	연중	30	
			초콜릿만들기체험	연중	40	
			석부작 체험	연중	50	
			천연염색체험	연중	30	
	아홉굿 마을	한경면 낙천리 1916	보리수제비	연중	50-100	
			보리빵	연중	50-100	

			보리피자	연중	50-100	
			농산물수확체험	5-7월	50-100	
			연못낚시체험	연중	50-100	
			보리샌드위치	연중	50-100	
			보리버거	연중	50-100	
	청수마을	한경면 청수리 1572-3	석부작체험	연중	10~40	
			압화공예체험	연중	5~20	
			꽃자왈탐방	연중	10명	
			농산물 수확체험	10월~ 익년 1월	10명	
			클레이공예체험	연중	5~20	
			승마체험	연중	1~30	
	명도암 마을 (참살이)	봉개동 270-3	김치체험	연중	50-100	
			염색체험	연중	50-100	
			나무곤충만들기	연중	50-100	
			색수제비만들기	연중	50-100	
			제기만들어차기	연중	50-100	
			양먹이주기	4-11월	50-100	

자료: 제주도청(2013), 자치행정과 공개 자료

1) 체험 프로그램 비교

한경면 저지리와 청수리는 각 마을별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저지리의 경우는 딸기체험과 굴따기 체험, 초콜렛 만들기 체험, 석부작 체험, 천연 염색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딸기 체험과 굴따기 체험은 겨울부터 봄까지 운영되고 나머지는 연중 운영된다. 특히 딸기체험은 성인기준 1인당 1만원의 요금으로 산지에서 직접 수확하며 맛볼 수 있고 소량의 정해진 무게만큼 갖고 갈 수도 있어 농촌을 체험해 보지 못한 제주 시내의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도시의 어린이들에게 나무에 달려있는 딸기를 직접 따면서 맛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한 개의 농장 당 주중 500~700여명이 방문하여 농가소득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농장에서 직접 만든 딸기잼등도 살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영세한 농민들이다

보니 주차장이라든가 농장을 홍보할 수 있는 안내판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설들은 농가가 직접 투자하기엔 다소 버거운 시설인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마을에 정자나 쉼터 등을 세울 것이 아니라 농가에게 도움이 되는 농가 인프라 시설 확충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수리는 제주시에서 서쪽으로 45km 떨어진 한경면 남동쪽에 위치한다. ‘맑고 깨끗한 물’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 마을은 푸르름을 잃지 않는 청정 제주의 자연을 그대로 보여준다. 마을의 대표적인 자원인 꽃자왈(머친힐) 탐방을 비롯하여 석부작 체험과 감귤 따기 등과 같은 농수산 수확체험, 승마 체험 등이 있다. 농산물 수확체험은 겨울시즌에만 운영되고 나머지는 연중 운영된다.

특히 청수리 꽃자왈은 생명의 땅 ‘제주의 허파’로 불리 우며 전체 면적 200만㎡(60만평)의 광활한 대지를 자랑한다. 마을 내 조직만 2007년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지정된 후 녹색농촌마을(청수7체험마을), 청수물영농조합법인, 옷뜨르영농조합법인, 착한먹거리 사업단 등이 구성됐고 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영농 체험, 음식체험, 공예체험, 승마체험이 이뤄지고 있다.



[그림 2-1] 제주도 꽃자왈 분포. 제주도 암괴상 아아용암류의 분포 및 암질에 관한 연구(2000)



[그림 2-2] 한경면 청수리 꽃자왈 내부(1)



[그림 2-3] 한경면 청수리 꽃자왈 내부(2)

표고버섯을 소재로 종균을 배양하고 직접 따는 체험으로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바른 먹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한 빙떡 만들기, 야생초 장아찌 만들기, 야생화 압화 제작 등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임호택 청수7체험마을 운영위원장은 청수리는 꽃자왈이나 오름, 평화박물관, 승

마체험장 등 자원이 좋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만 잘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특히 곳자왈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개발 가능성을 가진 청수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하였다

2) 방문객 현황

저지리의 연간 방문객수는 2003년 기준 12,670명으로 제주도에서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6개 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객 중 유수암리의 1만6천명에 이어 2번째 많은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당일 체험 인원은 11,885명이고 견학인원은 280명, 숙박인원은 505명으로 집계되었다. 반면에 청수리는 2013년 전체 내장객이 4,469명으로 저지리의 30% 수준이 못 미친다. 청수리의 당일체험 방문객은 4,000명이고 숙박인원은 413명으로 집계 되었다.

농촌체험프로그램은 단순히 체험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 판매나 먹거리 체험, 휴양과 연계해야 하며 특히 숙박으로 인한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림으로써 실질적으로 농촌마을에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내야 한다. 이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이고 도시에서 느끼지 못하는 농촌만의 특색을 살려서 도시민이 편안함과 향수를 느끼고 입소문을 통해 재방문을 유도해가야 한다. 체험프로그램 자체만으로는 농가소득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의 농가들이 방문객의 지갑을 열도록 하는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등을 개발하고 체류시간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

청수리에서는 2013년에 정부지원금과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평화동 노인 회관을 증축하였는데 이는 지역주민의 동참으로 이뤄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회관은 마을의 각종 축제와 회의장소등을 주관할 수 있는 다목적 회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회관을 이용하여 방문객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마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농촌의 여건상 실질적으로 회관을 운영하고 홍보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여 보류상태에 있다. 이와 같이 마을의 시설 등을 이용하여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게 되면 얼마든지 마을의 자원을 활용하여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6년 10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관광마을당 평균 방문객수는 5,117명/년, 총 매출액은 67,868천원/년으로 나타났다.(농림부

자료. 2006) 환경면 청수리와 저지리의 경우 방문객당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까지 조사된 자료는 없다. 방문객의 농촌마을 선택속성은 무엇이며 저지리와 청수리에서 느끼는 만족도 또한 조사된 자료가 없는 상태이다. 방문객이 어떤 계절에 방문이 집중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선호하는지 어떤 상품에 얼마나 소비를 하는지 등을 연구해야 하며 그 연구를 토대로 지역주민이 해야 할 일과 그에 따른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연구되어야 한다.

<표 2-8> 제주도 녹색농촌체험마을 및 전통테마마을의 내장객 현황

구 분		마을별	방문객수 (명)				
			계	당일체험	숙박	견학 (교육)	기타
녹색농촌 체험마을	장전 (03년)	소계	2,044	1,622	422	-	-
		1분기	185	85	100		
		2분기	844	694	150		
		3분기	955	783	172		
		4분기	60	60			
	저지 (06년)	소계	12,670	11,885	505	280	-
		1분기	5,972	5,800	22	150	
		2분기	6,050	5,835	85	130	
		3분기	95	-	95	-	-
		4분기	553	250	303		
	청수 (07년)	소계	4,469	4,000	413	-	56
		1분기	624	622			2
		2분기	853	853			
		3분기	1,754	1,522	232		
		4분기	1,238	1,003	181		54
	유수암 (08년)	소계	16,541	3,255	322	430	12,534
		1분기	2,502	248	120		2,134
		2분기	3,655	443	112	100	3,000
		3분기	5,036	1,206	-	30	3,800
		4분기	5,348	1,358	90	300	3,600

	소길리 (11년)	소계	200	102	98	-	-
		1분기	-				
		2분기	48	10	38		
		3분기	91	58	33		
		4분기	61	34	27		
전통테마 마을	아홉굿 (전통테마)	소계	39,809	8,752	1,405	5,652	24,000
		1분기	6,373	484	48	652	5,189
		2분기	10,655	2,308	172	1,056	7,119
		3분기	12,574	3,031	523	1,584	7,436
		4분기	10,207	2,929	662	2,360	4,256
	참살이 (전통테마)	소계	5,699	4,496	760	311	132
		1분기	415	65	250	95	5
		2분기	1,860	1,575	140	115	30
		3분기	1,464	1,164	190	22	88
		4분기	1,960	1,692	180	79	9
총계			81,432	34,112	3,925	6,673	36,722

자료: 제주도청(2013), 자치행정과 공개 자료

제 2절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의 주민참여의 개념과 형태

1. 주민참여의 개념

농촌개발에 있어서 주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란 정책이나 개발계획 및 실행단계의 전반적인 활동에 있어서 주민의 욕구가 반영되도록 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즉 정책결정이나 실행단계에 주민의 지식, 기술, 경험을 반영하여 마을의 실정과 주민의 정서에 맞게 개발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인 것이다. 넓은 의미의 개념은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부터 구체적인 정책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정

치 및 정책 전 과정에 걸쳐 일어나는 주민의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윤현규는 주민이 일정한 동기로 인하여 여러가지 방법과 형태를 통해서 행정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고 김병준은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행해지는 주민의 행위”로 이해하게 된다.

학자들의 각자 정의가 다소 상이 하긴 하나 농촌관광에서의 주민참여의 일반적인 정의는 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실행단계까지 해당지역의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계획에 직접 참여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주민참여의 형태와 필요성, 그리고 의의, 지역주민 참여의 장·단점 등은 다음 단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농촌관광에서의 지역주민 참여라는 주제는 새로운 화두가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주제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어려운 주제일수 있다. 실질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보면 지역주민의 참여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첫째 농촌관광과 관련된 전문지식의 부족이고 둘째는 정부 지원의 높은 의존도 때문이다.

전문지식 부족의 이유에는 농촌의 고령화 때문이다. 농촌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실질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할 젊은층의 세대가 부족했다. 대부분이 노인회에 가입되어 있으며 청년층도 40~50대가 대부분이었다. 현재 대부분의 사업도 오프라인을 통한 여행과의 사업연계가 대부분이고 소셜 네트워크나 인터넷, 스마트 앱 등을 통한 사업전개는 전무한 듯하였다. 현재의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홍보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정부 지원의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어쩌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이제껏 농촌은 정부의 주도와 정책에 의지하다시피 하여 살아왔기 때문이다. 영농자금 대출부터 농산물의 생산·판매까지 모든 곳에서 정부의 지원과 정책을 필요로 하였고 농민은 그에 맞춰 살아가기에 바빴다. 스스로 살아가볼 생각할 여유마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노인세대들에게 적극적인 참여와 실행을 바란다는 것은 무리다. 정부의 예산지원보다는 농촌관광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전문적인 컨설팅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농촌관광이 무

엇인지,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마을의 적극적인 홍보 방안은 무엇인지, 컨테츠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교육하고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전문가를 육성하여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노력을 지역주민과 같이 해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2. 주민참여의 형태

주민참여란 서두에 언급했던 바와 같이 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실행의 단계까지 지역주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역주민의 욕구가 반영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러나 그 참여의 형태는 어떤 일정한 원리나 규율이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내어 질 수 있다¹⁶⁾. 주민참여의 유형을 제도적 참여, 목적적 참여, 가치적 참여로 살펴보았다.

1) 제도적 참여

제도적 참여는 주민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로서의 참여인데 시민위원회를 만든 다든지 시민을 대표하여 자치회장이나 부녀회장을 소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도적 참여의 경우는 행정이 미리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제한적인 참여가 이뤄지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위원회나 조직 대표를 통한 것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다. 주민은 사실상 행정이 짜놓은 정책이나 계획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말하는 것만으로 형식적인 참여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어떤 정책을 수립해가는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방식, 또는 이미 수립된 몇 가지 안을 놓고 찬반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참가는 형식적으로 끝나 버릴 때가 많다. ‘주민의 의식을 청취하고 반영’ 했다는 것과 아니면 ‘주민을 무시하지 않았음’ 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하여 계획자의 구상을 정당화하기 위한 알리바이 만들기 절차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16) 김찬호, 「후기 산업사회의 도시 재상과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1997. P73~77

2) 목적적 참여

이는 지역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연루되어 당장의 어떤 이익 또는 손해의 발생을 계기로 참여하는 것으로 반대 또는 요구형 주민 운동을 말한다. 목적적 주민 참여는 일본에서 산업화 초기부터 줄곧 이어져 왔다. 미군기지 철수문제, 원자력 발전 및 폐기물 처리장 문제, 쓰레기 소각장 건설 등을 둘러싸고 반대 운동이 많이 일어났다. 그런데 특이할 만한 변화는 대립의 구도가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그 한가지 양상은 장점에 대해서 주민들 사이의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다. 이는 이른바 혐오시설이 들어오거나 남아있는 것에 대해 주어지는 반대급부에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기 때문이다.

3) 가치적 참여

이것은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자기가 사는 지역을 보다 풍요롭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참여하는 것으로 ‘마을 만들기’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가치적 주민참여는 목적적 유형보다 한걸음 나아간 형태이다. 이것은 처음부터 그러한 성격으로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목적적 주민 운동이 발전하여 변모하는 경우도 있다. 그 어느 경우이든 주민들이 자기 지역을 생활의 장으로 인식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와 실천적인 전략을 짜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 된다

주민 참여형 마을 가꾸기는 매우 복잡한 구조로 진행되기 때문에 구성원간의 의사소통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일정 정도 주민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역량이 강화되어 가는 시점이 되면 참여의 전 과정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마을을 가꾸고 이끌어 가야 할 주체들 각각의 의사소통과 역할분담이 원활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동체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농림식품부, 2007). 실제로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민 간 또는 주민과 관계기관과의 마찰이 주민간의 불화로 이어져 심한 대립관계가 형성된 경우도 많았다. 이는 처음부터 아니함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대립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제 3절 농촌관광개발에서의 주민참여의 필요성과 의의

1. 주민참여의 필요성

농촌관광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거나 현대의 도시계획 또는 개발 사업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주민참여의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지방자치제도하에서는 지방 발전의 고객이자 주인인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지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지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앞으로 자신의 거주지역의 문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가 것인지 또는 현재 어떠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지 어떠한 해결 방안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 역할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의식 형태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김승환, 2001:1).

1) 제도적인 관점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제도인 간접민주주의의 방식으로는 행정과 주민간의 직·간접적이고 의미 있는 상호 협조를 통하여 행정목적을 실현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간접민주주의 방식이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대표자의 주민의 의사 사이에 괴리가 생길 때는 주민의 직접 지방자치 행정에 참여함으로써 자기의 운명이나 이해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문제를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할 필요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주민참여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다.

2) 의식 형태적 측면

교육의 평준화, 소득수준의 향상, 산업화, 도시화 등이 진전됨에 따라 주민의

의식구조는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의 필요성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즉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강해지고 참여의 욕구가 나타남에 따라 행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의 요구에 따르는 책임을 분담시키고 주민의 협력과 지지를 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의 참여는 주민의 의식을 바꿔놓을 수 있는데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나 귀속의식도 없이 최소한의 자치의식도 찾아보기 어려운 무관심한 주민들은 자기 자신이 지역사회의 주체라고 각인하여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정에 참여하려 할뿐만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지역 사회의 일이나 자치단체의 행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자치형 주민으로 의식을 바꿀 수 있다.

또한 주민참여의 필요성으로 첫째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한 주민의 공동체 의식과 주인의식의 함양 등 주민자치 역량의 개발, 둘째 지역개발 정책에 있어서의 법적·제도적 등 대의민주주의의 보완과 주민을 행정의 동반자·주체자로 보게 하는 등 관료제에 대한 보완, 셋째 지역의 다양한 욕구와 이해를 반영하려는 합리적인 지방정책 결정과정의 수립 및 추진, 넷째 다양한 주민 목소리의 반영을 통한 주민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강화 및 공동체 의식에 기초하는 지역사회 조직화 촉진의 계기를 제시하였다¹⁷⁾.

<표 2-9> 주민참여의 제약요인

주민요인	지도자 요인	행정(개발)기관 요인
1. 낡은 사고방식과 태도 - 의타심 - 배타성 - 숙명론 - 씨족의식 2. 발전적 근대의식 (근면자 조.협동 등)의 부족 3. 영세주민 생계곤란	1. 의욕과 열성 부족 2. 지도력 미흡 - 설득력.인내심.포용력 부족 - 술선수범 미흡 - 언행.불일치 - 혈연.지연.비협조자에 의한 분열조정 미흡 3. 사업추진 기술 부족 - 독단적 사업진행	1. 하향식 사업정책과 지도 - 사업결정에 참여부족 - 주민숙원사업 지연 - 주민부담능력 2. 정책 일관성 결여 - 공약 불이행 - 단견에 의한 사업추진과 잦은 사업변경

자료: 문지환(2012), 「주민참여형 농촌만들기에 관한연구」, p.10

17) 최상호, 「지역사회개발론」, (박영사 2004.3), P.240

지역주민은 중앙의 행정 의존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점은 관광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활동에서도 적용된다. 특히 농촌의 경우 발작물 등의 유통가격이 폭락하여 통째로 갈아엎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마다 농민들은 정부에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이는 농촌주민들의 중앙정부의 행정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다. 한해 농사를 망쳤다고 해서 정부가 그 농사를 책임져줘야 할 의무도 없을뿐더러 그 해결책을 정부의 행정에서 찾아서는 곤란하다.

<표 2-10> 주민참여의 장.단점

주민참여 방법	장점	단점
요인접촉 (Key contact)	분별 있고 영향력있는 인사들의 효율적 참여가능 일반시민의 지지설득 용이	주요 인사들의 단편적 편견 악용 요인들의 지방적,사적 이익이 개입될 우려
우편 (Direct mail)	다수인의 의견청취 가능 개인적 의사보호 가능 의견에 대한 책임감 해소	무응답자 비율의 높은 가능성 의도적 결과가 나올 가능성
워크숍 (Work shops)	참여자의 진지하고 열띤 효율적 참여 가능 창의적 에너지 투입가능	과다한 비용과 시간소요 특정한 이익집단의 주장만이 편견으로 반영될 가능성
자문그룹 (Advisory groups)	정확하고 신중한 의사결정 구성원간의 개인적 관계로 상호교환 가능	구성원의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 광범위하고 다양한 시민의 요구이익의 기술집약적 곤란
특별위원회 (Ad hoc committee)	주민의 지지획득 용이 높은 정책결정 신뢰성	비밀보장이 어려움 전체를 대표하기 어려운 편견을 가진 위원들이 구성될 가능성
설문조사 (Questionnaire survey)	개인적인 시간 절약 분류,분석하기 용이함 다수인이 의견 투입 광역적 의견 청취 가능	설문지,표본 추출시 편견 개입 응답자의 불성실한 응답 형식적 조사에 그칠 우려
보고서 (Report)	타기관,조직의 견해 파악 관계전문가의 의견 참조	타기관,조직에 영향 받을 우려 전문적이고 범위가 좁을 우려
일상적 접촉 (Day to day contact)	자유로운 의사타진 용이 시민참여의 범위 확대	일부 말짚하는 소수의 견해 주민의 이익집약 곤란
대중매체 (Mass media)	문제의 공동성 유지 피드백의 통로 제공	과다한 매스컴 이용 비용 의사전달이 왜곡될 가능성

자료: 문지환(2012), 「주민참여형 농촌만들기에 관한연구」, P.10

농촌은 정부의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데 최근 영농협동조합 같이 농민들이 스스로 상품을 개발하고 유통에도 직접 참여하여 정부의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소비자에게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주민 참여의 제약요인은 <표 2-9>로 정리하였다. 문지환(2012)은 주민 참여의 제약요인으로 낮은 사고방식과 태도, 발전적 근대의식의 부족, 영세주민의 생계곤란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각 주민참여 방식에 따른 장·단점을 <표 2-10>로 정리하였다.

2. 주민참여의 의의

주민참여의 의미는 단순히 정책 및 계획과장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 개발사업의 시행과 운영, 관리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한 주민참여는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관련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사업계획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주민의식을 개발목표에 구체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¹⁸⁾.

과거 농촌과 관련된 모든 행위들은 하향식 방식이었다. 즉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감독하는 지역주민은 단지 따르고 지켜보기만 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다 보니 지역주민은 늘 수동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2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과 같은 사업이 시작되면서 지방자치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주민의 참여가 중요시 되었다. 본 연구 또한 농촌과 관련된 사업은 주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시작된다.

특히 농촌관광개발의 주체는 지역주민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농촌관광의 특성상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농촌 활동 등 지역주민의 삶 자체가 농촌관광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중문관광단지 같은 대단위 관광지는 지역주민과는 크게 상관없

18)안중철 외, 「관광단지 개발에 있어서 주민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도시연구보, 제14권, 도시연구학회, 2003, p.92.

다. 하지만 농촌관광은 다르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가 뒤따르지 않으면서 결코 지속적이고 효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이들의 역할을 바탕으로 개발 시행상 자신들의 삶의 질을 놓여 나갈 수 있도록 제 과정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명확해진 사실에 대한 참여가 아니라 계획준비단계, 계획수립, 계획보완단계, 사업시행, 유지관리 단계에까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⁹⁾.

1) 농촌관광 개발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중요성

농촌관광 개발 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사실상 형식적인 면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교육수준이 높은 도시민에 비해 농촌주민은 그렇지 못하여 참여의 방법과 절차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다. 또한 본인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경우가 많아 갈등이 생기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도로확장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도 본인명의로 토지를 상당부분 매각해야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수준까지 보상이 되지 않아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을 유치할 때도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단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의 농촌은 고령화 되어 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면도 있고 무엇보다 정부의 하향식 사업추진 방식에 익숙해져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지식이 부족해 보였다.

본 연구의 표본지역인 한경면 청수리와 저지리를 보더라도 이제까지 모든 사업은 정부의 보조와 정책 없이 추진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최근 농촌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농촌으로 귀농하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점차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보고자 하는 노력이 늘고 있다. 청수리는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촌체험과 꽃자왈 체험, 농촌숙박체험을 전개해나가고 있으며 저지리는 올레길 14코스, 저지 오름, 숙박체험 및 농산물 직판매장, 딸기체험농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개발하고 보존하고 마을을 가꾸는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는 지역주민의 의지만을 갖고 추진하

19) 유상건, 「농촌지역개발과 주민참여」, 한국농어촌공사 학술대회 자료집, 2006, p.5

기에는 쉽지 않다. 당연히 정부의 보조와 전문가의 조언,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들 주체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지역의 발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협력이 배제된다면 그 사업은 결코 성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주민참여는 지역주민이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정보, 자산, 노동력 같은 유무형의 자원을 동원하여 마을 가꾸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역동적으로 변화, 발전하는 지역들을 보면 선도적인 지도자와 그와 뜻을 함께하는 주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했을 때 계획의 합리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지역의 주변 환경여건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들 자체가 지역자원이기도 하다. 이들이 마을 가꾸기에 참여하는 과정은 자치능력을 학습하는 과정이며 개인과 조직, 사회가 자연스럽게 소통하여 발전의 내적 동력을 얻는 장이기도 하다.

주민이 마을 가꾸기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양 하다. 단순히 노동력이나 토지를 제공할 수도 있고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실제로 주민들은 이제 행정에 사업을 결정해도 무조건 따르지 않는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결정된 사업에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거나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렇듯 지역주민 스스로 자신들이 원하는 삶의 형태로 만들어 가는 일은 결국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연계를 실현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또한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고 그것이 경쟁력이 되어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²⁰⁾.

2) 상향식 농촌마을개발사업과 주민참여

과거 농촌마을 개발 사업은 주로 정부주도의 하향식 방식이었다. 하향식 개발 사업이 갖고 있는 장점인 효율성 때문이었다. 주민들 간 마찰을 줄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에 익숙해진 농민들은 늘 수동적이고

20)농림수산식품부(b), 「주민참여형 농촌마을 가꾸기」, 2007 ,P.16.

정부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온 것이 사실인데 어느 순간 도입된 상향식 개발방식의 도입은 농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농촌개발의 패러다임이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바뀌는 개발환경 변화 추이를 볼 때 삶의 질 향상계획에서 담고 있는 농촌개발계획 기조 역시 상향식 방식으로의 전환을 크게 요청 받고 있으며 그것은 여하히 지역의 계획 자율성을 재고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로서, 그 방안의 하나는 계획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먼저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은 주민의 계획 역량에 달려있는 문제이며 주민의 참여의식과 경험이 일천한 관계로 일시에 전폭적인 참여제도를 강구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주민들의 계획역량 향상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단계별로 적절한 수준의 참여제도를 마련하고 하나의 대안으로 조례, 주민협약 등과 같은 제도적 방안을 적극 활용하고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민이 계획역량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계획과정에 활발한 참여를 유도해 가는 농촌개발 협치(governance) 제도를 구축하도록 하고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집단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협치 체제의 구축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²¹⁾.

상향식 농촌마을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각 계층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 농민의 특성상 도시민보다 상대적으로 서류작업은 물론이고 각종 사무기기, 인터넷 활용도면에서 뒤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주고 중장기적인 비전과 플랜을 세워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상향식 개발방식이 아닌 한국농촌의 실정과 여건에 맞는 한국식 상향개발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생색 내기식 예산지원보다는 전문가를 육성하여 그 전문가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

21) 이병기, 「농촌계획제도의 정립방향에 관한 심포지움 자료집」,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8.p.27.

제 3장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례 지역 현황

제 1절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지역 사례

1.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현황

1) 마을의 유래

청수리는 제주시에서 서쪽으로 약 45km에 위치한 중산간 마을이다. 동쪽은 저지리, 서쪽은 조수리, 남쪽은 산양리와 접해있다. 청수리는 360여 년 전 ‘흑속물(또는 흑석물·흑속물) 일대에 청주 좌씨가 들어와 살고 270여년 전에 제주 고씨와 진주 강씨 등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 청수리의 옛 이름은 ‘널모로’ 또는 ‘널모름’ 또는 ‘청숫물’이다. 『탐라지』(제주목,과원)와 『남환박물』(지과)등에 板旨果園 (판지과원: 널모로의 한자차용표기)’, 「탐라도(17세기말)」와 「탐라지도(1709)」, 「제주삼읍도총지도(18세기중반)」, 『해동지도』(「제주삼현도」)등에 ‘板舍果園 (판사과원 : 널모르. 널모름의 한자차용표기)’, 『제주읍지(18세기말)』(대정현지,도로)와 「제주삼읍전도(1872)」(구우면), 『제주군읍지(1899)』(「제주지도」)등에 ‘淸水里(청수리:청수모을), 「감시절목」(1826)에 淸水(청수), 일제강점기 1:50,000 지형도에 ‘淸水里(청수리), 大洞(대동:큰골), 之去屹(지거홀), 水龍(수룡:수룡이) 등으로 표기되었다²²⁾.

淸水(청수)는 민간에 남아있는 ‘청숫물’이라는 음성형으로 볼 때 ‘청수’의 음독자 표기일 수도 있고 한자의 뜻 그대로 ‘맑은 물’의 뜻일 수도 있다. 청수리는 낙천의 동쪽, 조수의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18세기 후반에 淸水里(『제주읍지(18세기 말)』 대정현지·도로)가 보이거나 독립된 행정마을로는 인정받지 못하였던 것 같다. 18세기 후반까지는 행정상 저지리에 속하였던 것으로

22) 『한경면 역사문화지』,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7.p.463

보인다. 19세기 초반부터 독립된 행정마을이 되었다. 清水는 한자의 뜻 그대로 ‘맑고 깨끗한 물’이라는 데서 붙인 것으로 보인다.

청수리 본동은 일제 강점기 大洞(대동)으로 표기되었다. ‘지거홀’ 일대는 한자차용 표기로 之去屹(지거홀) 또는 池巨屹(지거홀) 등으로 표기되었는데 제주 4.3사건이 끝난 뒤인 1950년대부터 평화동(平和洞)이라 하였다고 한다. 현재 가메오름에는 ‘평화박물관’이 설립되었다. ‘지거’의 뜻은 확실하지 않으나 ‘홀’은 숲 또는 숲으로 된 언덕 등을 이르는 제주어이다.

청수리는 현재 ‘본동’과 ‘평화동’, ‘신연동’ 3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본동’은 청수리 중심마을이며 ‘평화동’은 본동 남동쪽에 있는데 옛 ‘지거홀’ (또는 ‘지거울’ 또는 ‘홀못’, 지거동)과 ‘너버홀’을 포함한 마을이다. 본동과 평화동 사이 ‘빌레왓’ 일대를 ‘신연동’이라 한다. 평화동 사람들은 제주 4.3사건 소개 후 복구 과정에서 청수리에 성담을 축조하고 동·서·남·북에 출입문을 초소를 설치하여 청수리 주민, 저지리 주민, 산양리 주민이 함께 생활하였다. 그 후 저지리와 산양리가 마을을 재건하고 주민이 복귀한 두 맨 마지막으로 ‘지거동’, ‘광홀동’, ‘신연동’ 등을 재건하였다. 그때 당시 한림면장 김창우가 주택재건용 목재를 지원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지역주민의 새로운 동명 요청을 받아들여 4.3사건 소개 후 제주도에서 맨 마지막으로 평화를 찾았다는 의미로 평화동이라 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한때 사용하였던 ‘정인동’이라는 동네 이름은 버스노선 변경 신청 시 ‘정인동’이라는 이름으로 신청하여 한때 불리웠으나 지금은 주민 총의에 의해서 원래의 동네 이름인 ‘평화동’으로 의결하여 지금은 ‘정인동’이라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주요 지명

가) 지거홀·지거홀동네

청수리 신연동(빌레왓동네) 동남쪽에 있는 동네로 예로부터 ‘지거홀’이라 부르고 한자차용표기로 지거홀로 표기하였다. 그러다가 제주 4.3사건을 소개한 뒤 마을을 재건하여 평화동으로 바꾸어 불렀다.

나) 너버홀 · 너버홀동네

청수리 신연동(빌레왓동네) 남쪽, 가마오름 동쪽에 형성되어 있는 동네로 예로부터 ‘너버홀’로 부르고 동네가 형성되면서 ‘광홀동’이라 하였다. 지금은 평화동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도 지거홀과 마찬가지로 불리워지고 있다.

다) 빌레왓동네 · 신연동

청수리 윗동네 동남쪽에 있는 동네로 예로부터 ‘빌레왓’이라는 데서 ‘빌레왓동네’로 불리어왔는데 나중에 ‘신연동’으로 불렸다.

라) 가마오름물

청수리 가마 오름 분화구에 있는 물로 청수리 1215번지 남쪽 끝에 있는 연못을 이른다. 4개의 연못이 있는데 식용수 우물1개, 우마 급수용 연못 2개가 있었으나 지금은 하나의 연못으로 통합되었다. 물이 귀하여 내천이나 바닷가가 없던 중산간에서 유일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던 연못이었으며 미꾸라지, 붕어, 뱀장어, 개구리등 다양한 동·식물이 공존했던 연못이었다. 현재 우물근처에 ‘영축사’라는 절이 있으며 지금도 부처님 오신날, 정월 대보름 등 주요한 날에는 다양한 행사를 치르고 있으며 많은 신도들이 찾는다.

마) 돛죽은 물

청수리 1351번지에 있는 식용수로 이용하던 우물을 말한다. ‘돈쑤빌레’에서 화살 맞은 돼지가 ‘곶은뱃밭’에 숨었다가 사냥꾼에 쫓겨 ‘돛죽은물’에 이르러 물을 마시고 죽었다고 하여 ‘돛죽은물’이라 하였다. 연못이 2개 있는데 ‘큰돛죽은물,’ ‘작은돛죽은물’이라 한다. 지금은 원형상태가 많이 훼손되어 형체만 남아있는 상태다. 당시 주민인 강가자님의 증언에 의하면 식수로 사용할 만큼 상당히 깨끗하고 맑은 우물이었으며 우물이 깊지 않아 물을 길 때 바가지로 얹게 떠내야 했다고 한다.

바) 너버홀물

청수리 742-1번지에 있던 우물로 지금은 메워져 원형을 상실하였다. 빌레 위

에 있었던 연못으로 우마급수용과 마을빨래터로 이용되었다. 큰 연못과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미꾸라지와 붕어, 개구리 등 다양한 동·식물이 존재하였다.



[그림 3-1] 돛죽은물 보존상태

사) 모진흙물(마진흙)

청수리 97번지에 위치해 있음 공동목장 입구에 있다. 식수와 우마급수용으로 사용되었다. 방목한 우마를 돌보러 간 주민들도 밀짚모자를 거꾸로 하여 물에 담가 걸른 물로 목을 축이곤 하였다. 지금도 형태는 남아있으며 우마급수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 논재물

청수리 829-2번지에 위치해 있다. 우마급수용으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매립되어 원형을 상실하였다.

자) 모진홀곶·마진홀곶

‘모진홀·마진홀’이 있는 곳을 이르며 청수리 산2~3번지로 청수목장 입구 일대를 이른다.

차) 가마오름

청수리 남쪽에 있는 오름으로 표고 140.5m, 표고 121m의 오름을 이른다. 큰 봉우리를 ‘큰봉’, 작은 봉우리를 ‘작은봉’, 동쪽에 있는 작은 언덕을 ‘중봉’이라 한다.

3) 주민조직과 역량

청수리는 한경면 동남부를 차지하는 중산간 마을이다 마을의 중요한 공간적인 범위는 95~124m사이에 포함되며 자연마을은 본동, 평화동 및 신연동 등 3개로 구성된다. 그리고 3개의 자연마을은 본동이 9개 반, 평화동의 3개 반, 신연동이 1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개별 자연마을의 인구규모나 공간적인 범위를 비교해 볼수 있다. 청수리는 원래 저지리에서 분리, 독립된 마을로서 마을주민들은 설촌 연대를 약 300여 년 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설촌 당시는 지금의 청수리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하여 남쪽에는 제주 고씨, 진주 강씨, 임씨 그리고 북쪽에는 강씨과 임씨등이 거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²³⁾.

청수리의 인구는 2007년 4월 현재 458명, 가구수는 191호, 이중 농가수는 155호로 농가비율은 81.2%로 확인된다. 청수리도 농업 의존도가 높은 마을이면서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마을 중 하나이다. 주요 농경지는 밭 239ha, 과수원 235ha, 초지 40.2ha이며 주요 농산물로는 감귤류(한라봉, 비가림 재배감귤, 노지), 맥주보리, 콩(검은콩), 옥수수, 복분자, 마늘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중 감귤, 한라봉, 땅콩, 검은콩 및 옥수수는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지정 받고 있다. 또한 감귤생산에 있어서는 생산성과 판로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비닐하우스(한라봉)와 비가림 시설을 갖춘 농가들도 있다. 나아가 일부 농가에서는 양돈업(1가구,150여두), 축산업(8가구,160여두), 양계업(1가구,70여 마리) 및 목축업(말,4가구,15두)에 종사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23) 청수리,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신청서」,2007 중 ‘마을위치 및 역사’ 관련 설명내용.

청수리의 마을 상징물은 가마 오름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오름은 일제 강점기 때 군사용 진지(인공터널)을 구축해 놓은 오름으로 유명하며, 최근 오름 말단부에 진지동굴을 토대로 평화박물관을 건설하여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다.

<표 3-1> 한경면 청수리 마을 현황

관련항목	내용	관련항목	내용
마을성격 (표고,m)	중산간 마을(95~124)	주요 특산물	감귤(한라봉,노지,비가림 재배감귤),맥주보리,검은콩,옥수수,복 분자,마늘,축산물 등
인구수(명)/가구 수(농가수,호)	458명/191호 (농가수:155호)	친환경 인증농산 물	한라봉,땅콩,검은콩,옥수수
마을 상징물	저지오름	지역자원 (인문.자 연)	이계오름,청수물,혁개물,흑숙물,돛죽 은물,꽃자왈,평화박물관,수석돌 거북이박물관,정려비,노랑굴(옹기가마 터),고래머들,포제동산,곱은똥밭
주요 인접도로	1136.1120번 지방도	주요 문화시설	초등학교,중학교,마을복지회관,도서관 ,새마을문고
주요 경지면적(ha)	밭:239,과수원2 35,초지:40.2	시장이용 현황	마을편의점, 신창리 한경농협 하나로마트(복지타운내), 한림읍소재 마트, 고산리 소재 마트 등
농업기반시설 (㎡,개)		마을 자치단체 (명)	영농회,노인회(103),청년회(50),부녀 회(50),의용소방대(2),개발위원회(1 7)

자료: ①청수리, 「조건불리지역 직물제 사업 신청서」,2007. ②북제주군.제주
대학교박물관, 『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Ⅰ)』,북제주군,1998

이 외에 봉천수인 청수물, 혁개물, 흑숙물, 돛죽은물과 저지리와 청수리 지구로 연결되는 꽃자왈지대, 마을내의 정려비, 그리고 오기가마터인 노랑굴 등도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 자원들이다. 또한 청수리는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있는데 농촌개발공사로부터 약 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마을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사업기간 : 2007 ~ 2012)은 마을 소유의

목장 안에 ‘승마체험학교’를 개설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육·문화 시설에는 저지리와 같은 학구를 지니며 초·중학교가 통합된 저청초, 중학교가 가까운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어 마을복지회관, 도서관 및 새마을문고가 있다. 마을주민들의 생필품 구입에는 평소에는 마을 내에 있는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지만 집안 대소사가 있을 시에는 신창리 소재의 한경농협 하나로 마트나 고산리 소재의 마트 혹은 한림리 소재의 마트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마을 자치조직으로는 영농회, 노인회, 부인회, 청년회, 개발위원회, 의용소방대가 있어 마을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2.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자원

1) 평화박물관(가마 오름 갱도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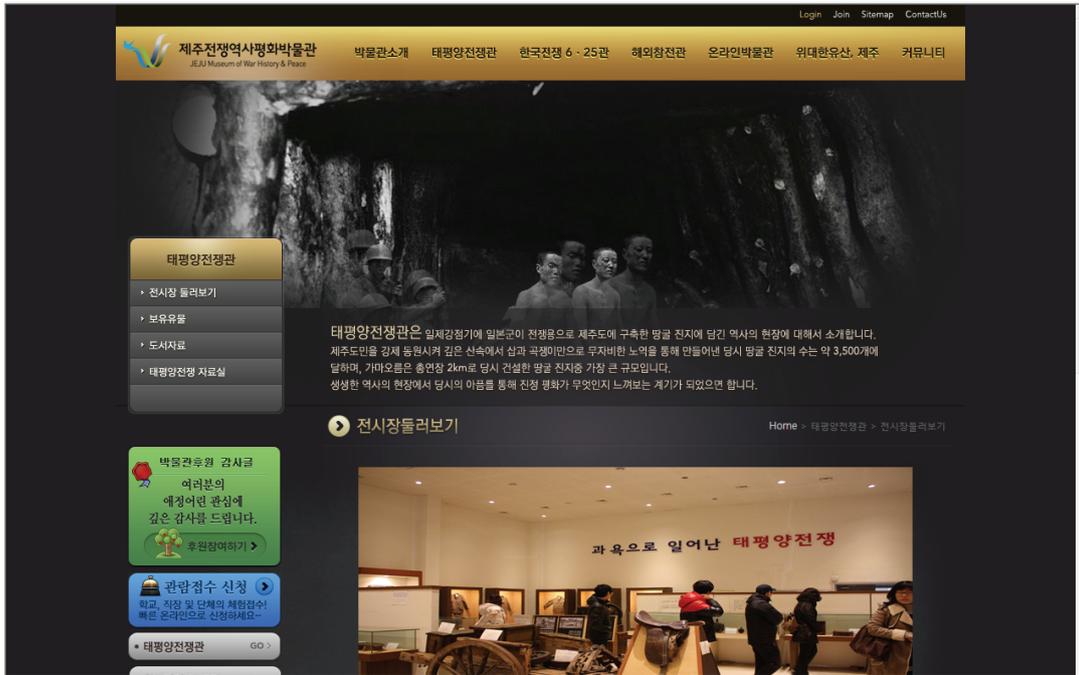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1202번지에 위치한다. 한경면 청수리 사거리에서 대정읍 무릉리 쪽으로 1.5km 정도 가면 왼쪽의 오름 표지석으로 진입하면 된다.

일본군 기밀전보문과 미군정보 보고서, 증언 등을 종합하면 가마 오름에는 제 111사단 제 244연대 본부 및 주력, 독립 야포병 제 6연대, 전차 제12연대 제 14중대 일부 병력 등이 주둔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연대본부 주둔지는 가마 오름 기슭의 옛 절터로 추정된다. 가마 오름에서는 미군기를 향해 포사격을 하기도 했으며 분대. 소대훈련, 총검술 등 매일 군사훈련이 진행되었다. 또 가마오름 정상에는 통신소가 있었고 오름 서측 사면 아래쪽에는 전차굴이라 불리는 인공동굴이 있는데 평소 이곳에 전차를 은닉했었다는 증언들이 나온다.

가마 오름 갱도(동굴) 진지는 지하 3층까지 파 내려간 미로형으로 완성도를 볼 때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갱도구축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평화박물관 이영근 관장은 증언채록 과정에서 1935년에 속칭 불래남 동산에 흙을 내다 놓았는데 나무 등으로 흙이 보이지 않도록 덮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한다. 임재경씨는 종전 뒤에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가마 오름에 권총, 실

탄, 수류탄 등 각종 무기와 굴 파는데 사용했던 ‘도로코’를 묻었다고 증언했다.



[그림 3-2] 평화박물관 홈페이지. 인터넷 자료



[그림 3-3] 환경면 청수리 가마 오름 지하요새 입구

가마 오름 갱도(동굴) 진지는 오름 지하는 전체에 걸쳐 거미줄처럼 형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지하에서 정상부까지 통로가 연결돼 있는 등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구조다. 마치 미로처럼 되어 있어 입구와 출구를 도무지 가늠할 수 없다. 또한 좁은 갱도를 따라 넓은 공간과 좁은 공간이 중간 중간 들어서 있다. 오름에는 오름 동측의 갱도를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한 평화박물관이 만들어져 있다.

2) 곶자왓

한경면 청수리에 위치한 곶자왓은 대지 200만㎡의 거대한 자연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천연 생태숲이다. 공항에서 서쪽으로 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최근 올레길 등 자연을 주제로 한 관광이 제주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어 곶자왓에 대한 연구와 관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곶자왓은 원래 소나 말등을 목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수리의 공동목장이다. 목장입구에 머친흘 물이라는 연못이 있어 우마급수용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도 사용 중에 있다. 최근에는 곶자왓 체험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프로그램으로 삽입되어 연간 2000명 정도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청수리 청년회를 중심으로 머친흘 곶자왓 축제를 개최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성공 여부에 따라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3) 가마 오름

한경면 청수리 1202번지에 위치한 오름이다. 표고 140.5m, 비고 51m, 둘레 2,059m, 면적 154,486㎡, 저경 646m의 오름으로 모양이 가마솥을 엮어 놓은 모양과 같다 하여 가마 오름이라 불리고 있으나 학자들의 어원적 해석에 의하면 ‘가마’는 ‘감’에서 나온 것이고 ‘감’은 북방어로 神(신) 또는 신성하고 거룩하다는 뜻을 지닌 ‘곰’ 계통의 말로 해석하고 있다. 즉 ‘가마 오름’은 신령스러운 산이라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림 3-4] 한경면 청수리 가마오름 입구



[그림 3-5] 한경면 청수리 가마오름 정상

4) 수컷돌거북이 박물관

한경면 청수리 20-3번지에 위치한 박물관으로 수컷돌거북이를 비롯한 휘귀 수석 1만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풍수지리상의 택지 명당 금귀몰니형에 자리를 잡아 박물관을 세웠다고 한다. 건물의 설계 또한 거북이 모양으로 하였는데 휴게실은 머리, 전시실은 몸통, 제1,2,3 전시실 등은 다리, 시인의 집은 꼬리로 되어 있다. 건물의 입구에서부터 끝까지 1장의 조그만 유리를 통하여 모두 들여다 볼 수 있게 만들었으며 부대시설로는 휴게실, 시인의 집, 산책로, 숲대공원, 장승군, 연못, 폭포 등이 있다. 박물관은 이름은 수컷돌거북이 박물관이지만 수백 가지에 이르는 숲대가 전시되어 있어 보는 이를 즐겁게 한다. 체험장도 있어 실제로 만 들어 볼 수도 있다.



[그림 3-6] 한경면 청수리 수컷돌거북이 박물관 내부(1)



[그림 3-7] 한경면 청수리 수컷돌거북이 박물관 내부(2)

제 2절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지역 사례

1.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현황

1) 마을의 유래

저지리는 400여 년 전 ‘물골’ 가까이에 있는 ‘용선다리’ 일대에 전주 이씨가 들어와 살고 그 후 ‘물골’에 제주 양씨과 원주 변씨가 들어와 살면서 동네가 커졌다고 한다. 저지리 옛이름은 ‘당몰’이다. 저지리는 가칭 『제주속오군적부』에 ‘楮旨’ (저지:다모르의 한자차용 표기), 『탐라도(17세기말)』에 ‘當地村

(당지촌)', 『탐라순력도(1703)』(「한라장축」)에 '當地(당지:닥모르의 한자차용 표기), 「탐라지도(1709)」와 「제주삼읍도총지도(18세기중반)」, 『해동지도』(「제주삼현도」)등에 '저지村(저지촌:닥모르 마을)', 『증보탐라지』와 『호구총수』, 『제주읍지(18세기말)』(제주읍지, 방리, 구우면)등에 '楮旨里(저지리:닥모르 마을), 일제강점기1:50,000지형도에 '楮旨里(저지리), 明伊洞(명이동:맹이눈), 水洞(수동:물골)' 등으로 표기되었다²⁴⁾.

2007년 기준으로 현재 저지리는 수동, 중동, 남동, 명이동, 성전동등 5개 자연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수동은 '물골' 이라 부르는 곳 일대에 형성된 마을로 한자 차용 표기에 따라 수동이라 하였다. 저지리 중심마을에서 북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일제강점기 1:50,000지형도에는 '수동' 이 지금의 '성전동' 일대에도 표기되어 있다. 중동은 '셋골' 이라 하는데 '저지오름'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고 남동은 '저지오름'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명이동' 은 '맹이눈·맹이눈' 일대에 형성된 마을로 저지 중심마을에서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성전동' 은 중동 북쪽 1km에 있는 마을로 황무지를 개간하여 이룬 동네라는 데서 '성전동' 이라 하였다고 한다.

2) 주요 지명

가) 당모르

저지리는 일찍부터 '당모르' 라 부르고 한자차용표기로 '당지(當旨)' 또는 '저지(楮旨)' 로 표기하였다가 지금은 '저지(楮旨)' 로 굳어졌다. 이 '당모르' 를 다시 '중동, 남동, 작짓 동네, 동동, 폭남밭 동네' 등으로 나뉜다

나) 맹이눈동네·명이동·명리동

저지리 '머중오름·마중오름' 남쪽에 있는 동네로 일찍부터 '맹이눈' 으로 부르고 한자차용 표기로 '명이동' 또는 '명리동' 이라 하였다. '맹이눈' 의 뜻은 확실치 않으며 현재는 그냥 '명리동' 으로 부른다.

24) 『한경면 역사문화지』,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7.p.458

다) 폭남밭 동네

저지리 저청초등학교 남쪽에 있었던 동네이다. 일찍부터 ‘폭남(팽이나무)’ 이 있는 ‘밭(밭)’ 이 있다는 데서 ‘폭남밭’ 이라 부르고 동네가 형성 ‘폭남밭동네’ 라 하였다.

라) 머중오름 · 마중오 · 마중오름

저지리 문화예술인마을 동남쪽에 있는 오름으로 예로부터 ‘머중오름 · 마중오름’ 으로 불렀는데 근래에는 ‘마중오름’ 이라 하고 있다. 한자차용표기로 ‘마중약’ 으로 표기하였다.

마) 당물오름 · 새오름

저지리 중동 가까이에 있는 이름으로 ‘오름허릿당 · 할망당’ 이 들어섰다는데서 ‘당모를오름>당물오름’ 이라 하고 한자차용표기로 ‘당지약’ 으로 표기하였다. 그런데 이것을 ‘닥모를오름 · 닥물오름’ 으로 인식하고 저지약으로 표기하면서 ‘저지오름’ 으로 불리게 되었다. 한편 ‘새오름’ 이라는 별칭도 있다. ‘새’ 는 ‘초집’ 을 일 때 지붕을 덮는 새를 뜻한다.

바) 초남밭동네 · 성전동

저지리 중동(큰동네) 위쪽에 형성된 동네를 이른다. 예로부터 ‘초남’ 이 있는 ‘밭’ 이 있다는데서 ‘초남밭’ 이라 부르고 이 일대에 동네가 형성되면서 ‘초남밭동네’ 라고 하였다. 1950년대부터 ‘성전동’ 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사) 알못

저지리 중동에 있는 못을 이른다. ‘알못’ 은 아래쪽에 있는 못이라는 데서 붙인 것인데 1개의 먹는 물통과 1개의 쉼물통(소물통)이 남아있다. ‘쉼물통’ 은 3개가 있었는데 2개는 메워버렸다고 한다.

아) 앞새물

저지리 ‘머중오름’ 바로 서남쪽 ‘굽’ 에 있는 물을 이른다. 6개의 물통이 남

아있는데 들어가는 어귀 아래쪽 물통 1개는 ‘쇄물’ 로 이용하였던 것이고 나머지 5개는 먹는 물통으로 이용하였는데 맨 안쪽 아래쪽 물통은 ‘애깃구덕’ 과 같이 생겼다고 해서 ‘애깃구덕물통’ 이라는 별칭이 있다.

이 밖에도 작짓동네, 오름허릿당, 하르방당, 할망당 마오름등 지금도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불리워지는 정감 있는 지명들이 많다. 그러나 지금은 동네이름이나 지명들이 표준화되고 세대간의 차이가 있어 지명들이 점차 잊혀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자가 지금도 불리워지는 몇몇 지명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이유는 저지리 마을의 소중한 자산인 고유한 지명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계승시켜 나가기 위함이다.

3) 주민조직과 역량 및 생업

저지리는 한경면내의 전형적인 중산간 마을로써 해발 110~140m 사이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며 마을의 공간적인 범위는 저지 오름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수동, 중동, 남동, 성전동 및 명이동 등 약 5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저지리는 약 400년전 물골에 전주 이씨가 정착한 것이 마을의 시초라고 전해진다²⁵⁾. 저지리는 중산간 마을로서는 상당히 이른 시기에 형성된 마을로, 마을이름이 『탐라순력도』 (1702년)와 『탐라지도』 (1709년) 등에 ‘닥모르’ 나 ‘저지촌’ 으로 등장할 정도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²⁶⁾.

최근 저지리에는 문화예술인 마을이 들어섰고 분재예술원과 방림원, 올레길 14코스, 저지 오름 등 자연식물을 소재로 한 관광지가 조성된 이후로 도내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아지고 있다. 2007년에는 저지 오름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으로 대상을 차지하였으며 2013년에는 저지리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연합에서 추진하는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라운 CC’ 라는 골프장을 유치하여 타이거우즈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퍼들을 초청하기도 하였다. 최근 저지리는 올레길과 오름, 골프장 등으로 전국의 관광객이 줄을 잇고 있다. 이것은 그 동안 저지리 주민들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일환으로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추진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25) 저지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기본계획』, 2007 중 ‘마을유래’ 내용의 일부

26) 오창명,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8, p 426.

<표 3-2> 한경면 저지리 마을 현황

관련항목	내용	관련항목	내용
마을성격(표고, m)	중산간 마을(110~140)	주요 특산물	감귤(한라봉, 진지향, 천혜향), 키위, 콩, 석창포, 복분자, 마늘, 참깨 등
인구수(명)/가구수(농가수, 호)	1,073명/400호 (농가수:326호)	친환경 인증농산물	진지향, 천혜향, 한라봉, 키위, 복분자, 석창포 등
마을 상징물	저지오름	지역자원(인문.자연)	가메창, 마오름, 송아오름, 마중오름, 꽃자왈, 분재예술원, 방림원, 예술인마을, 허릿당, 하르방당, 할망당, 포제단
주요 인접도로	1136.1115번 지방도, 10.17시도	주요 문화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마을복지회관(3), 도서관, 미술관, 정보화센터
주요 경지면적(ha)	밭:330, 과수원:206, 초지:30	시장이용 현황	마을편의점, 신창리 한경농협복지타운, 한림읍소재 마트, 한림5일장, 모슬포5일장
농업기반시설 (㎡, 개)		마을 자치단체(명)	영농회(304), 노인회(210), 청년회(60), 부녀회(70),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125),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위원회(35), 주민자치위원회(25),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위원회(13)

자료: ①저지리,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신청서」, 2007. ②북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 『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Ⅱ)』, 북제주군, 1998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은 행자부와 농수산부가 중심기관이 되어 전국적으로 공모한 사업인데 제주도에서는 저지리가 유일하게 대상마을로 선정됨으로써 많은 예산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저지리의 인구는 2007년을 기준으로 1,073명, 가구수는 400호, 농가수는 326호(농가비율, 81.5%)를 보인다. 인구지표만을 보면 최근 몇 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나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인구가 1,700명을 초과할 정도

로 중산간 마을로서는 인구규모가 큰 마을이었다. 농업 생산 활동의 기반인 농경지는 밭 330ha, 과수원 206ha, 그리고 초지가 30ha로 나타난다. 많은 농가에서는 감귤류인 한라봉, 진지향, 천혜향을 비롯하여 키위, 복분자등과 맥주보리, 콩, 마늘, 참깨등 기존의 전통작물도 많이 생산하고 있다. 저지리는 가구당 연평균 소득이 3,000만원(2006년 기준)에 이를 정도로 농업부문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된다.

저지리의 마을 상징물은 저지 오름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 마을주민들이 오름 정상까지 산책로를 말끔하게 단장함으로써 어린이는 물론 노인층도 가볍게 운동과 산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 오름 외에도 분재예술원, 방림원, 문화예술인마을, 유리의 성 등은 이미 도내에서도 아주 중요한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다.

저지리는 중산간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구가 뒷받침되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도서관, 미술관, 3개의 마을복지회관, 복지센터, 정보화 센터 등 교육·문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외에 관공서인 환경 파출소와 2개의 금융기관(환경농협 저청지소, 제주서부신협)도 입지하고 있다. 주민들의 생필품 구입은 주변의 신창리의 하나로 마트와 한림읍 소재의 마트 등으로 주로 이용하는데 최근 슈퍼마켓 수준의 마트와 24시 편의점등이 저지리에 입점해 있어 주민들이 애용하고 있다. 마을자치회로는 영농회(304명), 노인회(210명), 청년회(60명), 부녀회(70명),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125명),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위원회(35명), 주민자치위원회(25명),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위원회(13명)등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정보화 마을 운영위원회’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위원회’, ‘녹색농촌 체험마을 운영위원회’는 오늘의 저지리가 비약적인 개발과 발전이 있기까지 마을주민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희생이 뒷받침되어진 운영체라 할 수 있다.

제주 한경면 저지리(이장 조은호)는 최근 (사)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연합이 주관한 ‘가장 아름다운 마을’에 선정됐다. 전국에서 4번째로 선정된 저지리는 저지오름 등 수려한 생태자원과 감귤 및 약초를 재배하는 생활양식, 할망당(할망은 ‘할머니’의 제주어)과 빙떡 등 전통문화, 주민들과 마을 거주 예술인들과의 융합 등이 마을연합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표 3-3> 한경면 세대 및 인구 분포

(단위:호,명)

구분	세대	인구		
		계	남	여
계	3553	8,506	4,243	4,265
판포리	236	534	267	269
금등리	69	146	77	69
두모리	197	479	234	245
신창리	353	857	424	433
용당리	116	265	125	140
한원리	141	332	167	165
낙천리	93	230	117	113
조수1리	310	719	367	352
조수2리	61	127	67	60
저지리	428	1,044	536	508
청수리	197	466	230	236
고산1리	695	1,740	837	903
고산2리	266	633	320	313
용수리	203	466	222	244
산양리	188	468	253	215

자료: 「한경면 역사문화지」,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7.

전형적인 중산간 마을인 저지리는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운데 더덕과 당근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 생산되는 지역이다. 노지감귤과 한라봉, 참다래 등의 과수, 석창포 등 약용작물, 딸기, 양배추 같은 월동채소 등 이루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로 다양하다. 귀농인 등 젊은이들이 많다는 점도 자랑거리다. 만 45세 이하가 가입하는 마을청년회는 40여명이나 활동하고 있다. 저지리는 2008년부터 전원마을이 조성되면서 귀농인들이 정착하고 있으며, 마을에는 분재예술원인 ‘생각하는 정원’ 과 야생화 등이 전시된 ‘방림원’ 등 볼거리가 많아 관광객 방문도 잦다.

<표 3-4> 한경면 농가 및 농업인 현황

(단위:호,명)

마을별	농가수	농업인 수		
		계	남	여
계	2,175	6,543	3,288	3,255
판포리	139	407	198	209
금등리	41	123	66	57
두모리	110	351	168	183
신창리	187	589	292	297
용당리	70	191	99	92
한원리	84	242	123	119
낙천리	73	202	105	97
조수1리	196	556	282	274
조수2리	49	148	78	70
저지리	262	816	415	401
청수리	132	408	199	209
고산1리	436	1337	665	672
고산2리	126	390	195	195
용수리	133	388	198	190
산양리	137	395	205	190

자료: 「한경면 역사문화지」,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7.

아름다운 경관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올레코스인 저지 오름은 물론 ‘제주의 허파’ 라고 불리는 곳자왈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마을에서는 화가와 공예가 등 24명의 예술인들이 창작에 전념하고 있으며, 주민과의 유대가 끈끈하다.

저지리는 최근 농협중앙회가 주관한 ‘제7회 도농교류 농촌사랑 대상’ 에서 회장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기도 했다. 조은호 이장은 “주민 열정에 힘입어 패기 있게 마을을 발전시켜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2.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자원

1) 저지오름

한경면 저리지(옛이름_닥물) 저청초등학교에서 북서쪽 수동으로 가는 도로 우측에 위치한 오름이다. 둘레가 약 900m, 깊이가 약 60m쯤 되는 매우 가파른 깔대기형 산상분화구를 갖고 있는 화산체이다. 오름 각 사면에는 해송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잡목과 함께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으며 분화구안에는 낙엽수림과 상록수림이 울창한 자연림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안사면으로 보리수나무, 찔레나무, 닥나무등이 뺏뺏이 우거져 있어 화구 안으로의 접근이 매우 어렵다. 저지 오름은 마을주민들의 힘으로 나무를 심어 오늘의 울창한 숲을 조성하여 2005년 06월에 생명의 숲으로 지정되었고 또한 2007년에는 산림청과 생명의 숲으로 주관한 제 8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106개 신청대상지중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올레길 14코스가 생겨 저지오름과 더불어 저지리의 가장 큰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 또한 저지오름은 면적 35ha의 작은 분화구인 오름 전 지역에 소나무·삼나무·상산·팽나무·육박나무·자금우 등 220여종 2만여 그루가 자라고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자연학습생태장이자 체력 단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위의 관광지인 ‘생각하는 정원’ 이나 ‘문화예술인마을’, ‘방림원’, ‘유리의 성’ 등 유명관광지가 인접해 있어 저지오름을 찾는 관광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표 3-5> 한경면 내 오름 현황

오름명	소재지	표고 (m)	비고 (m)	둘레 (m)	면적 (m)	저경 (m)	분화구
판포오름	판포리 934,935번지 일대	93.2	58	1,645	192,446	648	말굽형 (동향)
저지오름	저지리 산 51번지	239.3	104	2,542	379,316	621	원형
가메창	저지리 1496번지 일대	145.8	6	486	17,037	135	원형
송아오름	저지리 134번지 일대	104	29	747	30,701	281	말굽형 (남향)
마오름	저지리 산 55-2번지 일대	122	27	914	38,946	272	말굽형 (남향)
마중오름	저지리 2143-18번지 일대	168.6	44	1,613	120,340	437	복합형
이계오름	청수리 1854번지 일대	167.7	38	855	48,811	316	말굽형 (동향)
가마오름	청수리 1202번지 일대	140.5	51	2,059	154,486	646	말굽형 (북동향)
새신오름	청수리 3369번지 일대	141.2	41	1,814	214,735	622	원형
굽은오름	조수2리 3666번지 일대	96	26	2,667	296,443	820	복합형
당산봉	용수리 4705번지 일대	148	118	4,674	534,135	1,259	복합형
당산봉 알봉	용수리 4705번지 일대	83	53	1,610	184,267	478	원추형
수월봉	고산리 3763번지 일대	78	73	2,240	249,820	952	원추형

자료:제주도, 『제주의 오름』, 제주도, 1997, pp.92



[그림 3-8] 한경면 저지리 저지 오름 입구



[그림 3-9] 한경면 저지리 저지 오름 정상 입구

2) 생각하는 정원

저지리에 위치한 생각하는 정원은 1만여 평의 면적에 1992년 7월 30일에 개원한 아름다운 공원으로 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자연경관과 함께 다양하고 아름다운 제주특산 관상목 분재로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고 있다.

주변에는 한림공원, 산방산, 오설록 등 여러 관광지가 있으며 연간 35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그림 3-10] 한경면 저지리 『생각하는 정원』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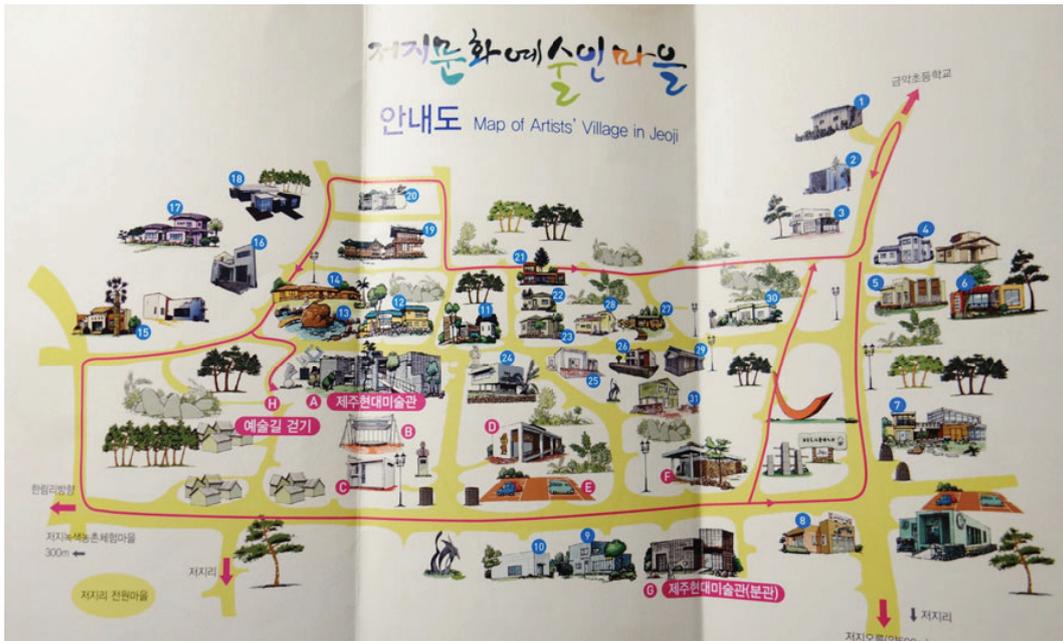
[그림 3-11] 한경면 저지리 『생각하는 정원』 내부

3) 저지 문화예술인 마을

창작활동, 지역주민 및 예술가의 재교육 기능, 문화 예술의 대중화 등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작업장과 작품전시공간 및 관광객들이 새로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문화예술인 촌이다. 저지문화예술인 마을은 예술가의 작품 및 제작품을 생산 장소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예술, 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지며 현장경험과 예술 교육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이 문화예술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정서가 순환되어 생활문화의 풍요로움을 창출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인 마을의 건설로 각종 워크숍 또는 교류활동으로 지역의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개발 효과 유발 및 관광자원화와 함께 문화예술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저지문화예술인 마을의 독특한 창작공간조성과 문화예술향유 기반조성을 위하여 2005년 12월 미술관 건축물이 최초 착공된 이후 원로화가 김홍수화백 작품(20점 기증)과 박광진 화백 작품(194점)을 확보하여 전시관 증축과 함께 2006년 12월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2007년 9월 1일 「제주현대미술관」 개관을 하게 되었다. 특히 입주 작가와 지역예술인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미술관 초기 전기 작품 250여점(기증 작품 포함)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2006년 6월 국제현대조각 심포지엄을 통하여 국내외 유명작가 현대조각 작품 9점을 확보하고 있다.



[그림 3-12] 한경면 저지리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입구



[그림 3-13] 한경면 저지리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안내도

4) 방림원

방림원에는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대륙의 세계 각국을 돌며 수집한 야생화 3천여 종이 아름다운 예술작품처럼 잘 가꾸어져 있다. 3천여 평의 방림원 곳곳에는 수십 년에 걸쳐 국내외 들꽃들을 수집해 온 세월과 정성의 공산으로 항상 마음이 행복해지는 곳이다.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의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야생화 3천여 종이 자연적인 미와 더불어 소박한 들꽃의 창조함을 느낄 수 있다. 방림원 박물관 내 200여 평의 유리온실 안에는 그 계절에 피고 지는 200여종의 작품들이 변화되고 있고 제주도 모형과 태극기의 이미지를 야외정원 곳곳에는 계절에 따른 테마로 이루어진 공간에서 웃음과 기쁨을 자아내기도 한다. 또한 국내 자생식물 90여 가지와 귀화식물 10가지를 더한 100가지 식물을 심은 백화동산, 자연의 형태를 그대로 살린 형제 폭포경관이 보는 이를 즐겁게 한다.



[그림 3-14] 한경면 저지리 『방림원』 입구

제 4장 실증 분석

제 1절 자료의 분석

1.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에 관한 질의로 작성되었다. 설문지의 구성과 내용은 안중현(2008)의 ‘농촌관광마을 만들기와 주민참여’와 이무희(2006)의 ‘농촌관광개발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의 농촌관광과 관련된 선행연구자들의 설문을 원용하였으며 표본지역의 실정과 수준에 맞게 연구자가 재작성 하였다.

<표 4-1> 설문지의 구성

구분	내용	문항	
사업선정에 따른 인식	선정에 대한 내용인지 및 찬성·반대	1~3	
회의참여	참여정도	참여 횟수와 중요도 인식	4~6
	참여수준	제안활동 등의 참여 수준	7
활성화 방안	사업의 전반적인 활성화 방안 인식	8~11	
기대 인식	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 인식	12~13	
사업참여 및 역할	사업참여 정도 및 이유	14~16	
인구통계	나이, 성별, 거주년수, 직업, 소득	17~21	
직책	직책 경험 유무에 따른 참여 정도	22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인지 정도와 관련하여 3문항, 회의참여 수준과 관련하여 4문항,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활성화 방안과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4문항, 그리고 사업으로 인한 기대 인식 2문항과 사업에의 참여 및 역할에

관한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인구통계로는 나이와 성별, 거주 년수, 직업, 소득에 관하여 구성되어졌고 마지막으로 마을이장과 청년 회장 등의 직책경험 유무에 관한 설문으로 총 22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인구통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설문은 명목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2.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 가설의 검증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측정도구의 신뢰성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신뢰성이란 동일한 개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측정하였을 때 나타나는 측정값들의 분산을 의미한다.

<표 4-2 >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명	설문문항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녹색농촌 체험마을 인식 관련	1	1.53	.880	.807
	2	1.41	.524	
	3	2.59	.822	
녹색농촌체험마을 회의참여 정도	4	2.36	1.190	
	5	1.66	.810	
	6	2.62	1.011	
	7	3.08	1.418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 방안 인식	8	1.60	.792	
	9	2.00	1.095	
	10	2.45	1.266	
	11	1.62	.685	
녹색농촌체험마을 기대 인식	12	2.40	.699	
	13	2.25	1.126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참여 및 역할	14	3.51	1.480	
	15	3.45	1.505	
	16	2.42	.803	

본 연구에서는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Nunally(1978)는 탐색적인 연구 분야에서는 알파값이 0.6 이상이면 충분하고,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0.8, 그리고 중요한 결정이 요구되는 응용연구 분야에서는 0.9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Van 등 (1980)도 조직단위의 분석수준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알파값은 0.6 이상이면 측정도구의 신뢰성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반화 하고 있다. 본 설문지의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는 0.807로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표 4-2>.

3. 인구 통계별 분석

1) 청수리 마을주민의 인구 통계적 분석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 거주 기간과 마을직책 등, 주 소득원, 연간 수입을 조사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3>.

먼저 설문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가 47명(69%), 여자가 21명(31%)로 남자가 많았다. 연령은 30대 14명(21%), 40대 18명(34%), 50대 8명(15%), 60대 5명(9%), 70대 11명(21%)으로 나타났다. 또한 40~50대 청장년층이 34명(50%)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설문대상을 어느 정도 마을 사업에 관련이 있고 마을을 주도해 나가는 청년회 및 부녀회, 그리고 녹색농촌체험마을 회원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의 목적이 마을 사업에 대한 주민의 참여수준과 활성화 방안에 있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대상을 선정하여 설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거주 년수는 태어나면서부터가 22명(33%), 5년 미만 9명(13%), 5~10년 9명(13%), 10~20년 12명(18%), 20년 이상이 16명(23%)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거주하는 인원이 대부분 마을태생이며 외부로의 인구유입은 10년 미만 거주인원이라고 봤을 때 18명(26%)로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표 4-3> 한경면 청수리 주민의 인구통계적 분석

(단위 : 명)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47	69
	여자	21	31
연령	30대	14	20
	40대	24	35
	50대	10	15
	60대	6	9
	70대 이상	14	21
거주기간	5년 미만	9	13
	5~10년	9	13
	10~20년	12	18
	20년 이상	16	23
	태어나면서	22	33
직업	농축산업	53	78
	유통업	2	3
	기업체 및 공무원	7	10
	기타	6	9
소득	2천~3천만원/년	16	24
	3천~4천만원/년	13	19
	4천~5천만원/년	23	34
	5천~6천만원/년	11	16
	6천만원 이상/년	5	7
마을직책	있다	22	32
	맡은 적 없다	46	68

마을인구의 직업 설문에는 78%가 농·축산업으로 응답하였으며 유통업이나 기업체·공무원은 22%로 나타났다. 이는 마을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기업체 및 공무원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제주시내에 위치하는 기업체나 공무원에 종사하는 주민이다.

마을주민의 소득은 4~5천만원이 34%로 가장 많았으며 6천만원 이상이 7%나 나타나 4천만원 이상 소득이 전체의 57%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소득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과거의 단순한 밭작물 등의 재배가 아닌 하우스감귤이나 특화 작물 등의 시설재배로 인한 고소득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을의 직책은 마을이장이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는데 책임감과 리더십을 갖추고, 마을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마을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선출하는데 과거에는 마을의 주요 인사들이 협의로 선출하였지만 현재는 투표로 선출된다. 마을이장을 비롯한 작목반장까지 22명(32%)이 직책을 경험하였으며 46명(68%)은 직책을 맡은 적이 없는 걸로 나타났다. 기타로는 향우회장, 총무 등으로 나타났다. 직책의 경험여부는 마을의 사업을 이끌어가는 직책인 만큼 사업추진력과 리더십, 책임감등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들은 마을의 사업에 대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마을의 상위 집단이라 할 수 있겠다.

2) 저지리 마을주민의 인구 통계적 분석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 거주기간과 마을 직책 등, 주 소득원, 연간 수입을 조사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4>.

먼저 설문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가 32명(51%), 여자가 31명(49%)로 남자가 많았다. 연령은 30대 19명(30%), 40대 29명(46%), 50대 15명(24%)로 나타났는데 청수리가 60~70대 이상이 30%를 차지하는 반면 저지리는 청년층에 대한 설문이 주를 이뤘다. 청수리가 본 연구자의 연고지인 이유로 다양한 계층에 대한 설문이 가능한 반면 저지리는 장년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일대일 설문이 어려운 점도 있었으나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특성상 사업을 이끌어가는 계층이 30대에서 50대 사이의 청년층을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다 더 신뢰가 높은 설문이 될 수 있었다.

거주 년수는 태어나면서부터가 18명(29%), 5년 미만 12명(19%), 5~10년 9명(14%), 10~20년 9명(24%), 20년 이상이 15명(24%)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년 이상 거주하는 인원이 331명(53%)로 주를 이뤘으며 10년 미만 거주자는 21명(33%)으로 나타났다.

<표 4-4> 한경면 저지리 주민의 인구통계적 분석

(단위 : 명)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32	51
	여자	31	49
연령	30대	19	30
	40대	29	46
	50대	15	24
	60대	-	-
	70대 이상	-	-
거주기간	5년 미만	12	19
	5~10년원	9	14
	10~20년	9	14
	20년 이상	15	24
	태어나면서부터	18	29
직업	농축산업	44	70
	음식 숙박	4	6
	유통업	2	3
	기업체 및 공무원	5	8
	기타	8	13
소득	2천~3천만원/년	24	38
	3천~4천만원/년	18	28
	4천~5천만원/년	6	10
	5천~6천만원/년	6	10
	6천만원 이상/년	9	14
마을직책	있다	19	30
	맡은 적 없다	44	70

마을인구의 직업 설문에는 70%가 농·축산업으로 응답하였으며 유통업이나 기업체 및 공무원은 30%로 나타났다. 청수리 주민의 농축 산업이 78%에 비해 낮은 수치이며 한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은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6%

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저지리가 오름이나 올레길, 딸기농장체험 등으로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생겨난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농촌지역의 활성화나 농촌관광의 활성화에 있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농가의 농업소득의 의존성을 벗어나 농외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농외 소득이 매우 낮은 편이다.

마을주민의 소득은 2~3천만원이 38%로 가장 많았으나 6천만원 이상이 14%나 나타나 청수리의 2배 수준이다. 이는 최근 저지리의 딸기체험 농장이 활성화 되어 있고 또한 외부인의 방문이 많아 농산물 직거래 등으로 인한 고수입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을이장을 비롯한 작목반장까지 19명(30%)이 직책을 경험하였으며 44명(70%)은 직책을 맡은 적이 없는 걸로 나타났다. 직책의 경험여부는 마을의 사업을 이끌어가는 직책인 만큼 사업추진력과 리더쉽, 책임감등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마을사업에 관한 아이디어나 제안 등의 적극적인 활동에 관한 관계분석을 통해 상관관계를 집계하였다.

제 2절 주민참여 및 인식 현황

1. 청수리 주민의 참여인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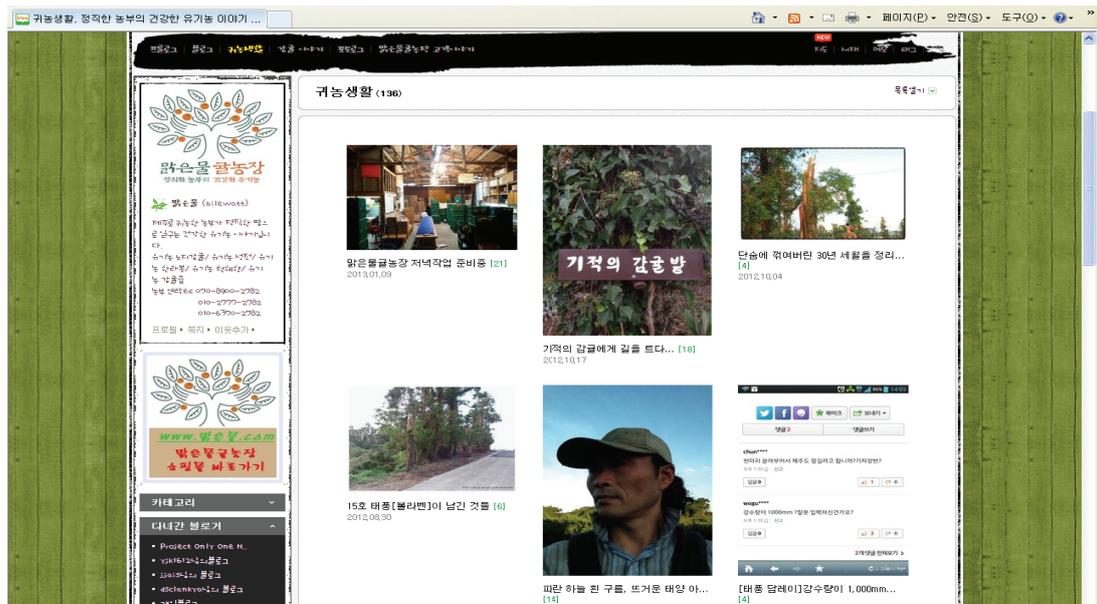
[그림 4-1] 한경면 청수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입구

1) 청수리 마을주민의 주 소득원 및 소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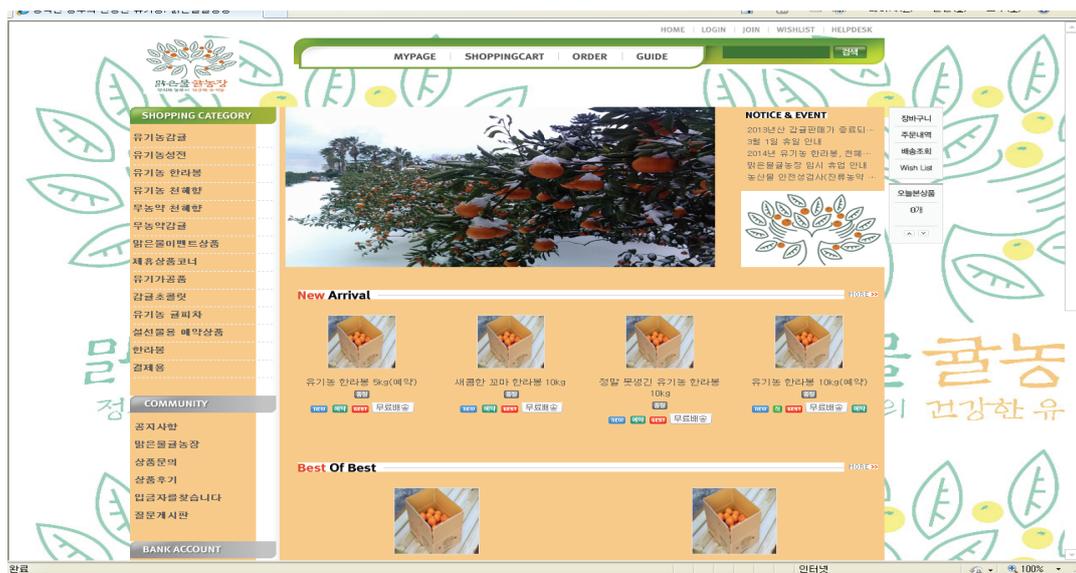
주민들의 주 소득원과 소득금액을 질문한 결과 농축산업 53명(78%)로 가장 많았고 음식 숙박 및 유통업 2명(3%), 기업체 및 공무원이 7명(10%), 기타 6명(9%)으로 나타났다. 농축산업 중에서 감귤재배가 주 소득원이고 다음으로 양배추나 보리, 콩 같은 밭작물과 축산업이 주를 이룬다. 특히 최근에는 노지감귤보다는 하우스를 시설하여 한라봉이나 천혜향 같은 시설재배를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또한 저지리의 경우는 최근 딸기체험농장이 생겨나 도시민들이 직접 딸기 농장을 방문하여 따보기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고 산지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매도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최근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과는 별개로 서울 대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다시 고향으로 귀농하여 유기농 감귤 재배를 비롯한 쇼핑몰 운영, 도시인을

위한 농장 체험 등을 소재로 한 농촌관광에 종사하는 인구가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성민씨는 감귤을 비료나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으로 재배하여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기도 하며 도시민을 상대로 농장체험과 관련된 사업을 활기차게 이어가고 있다. 그는 농촌관광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농촌이 정부의 지



[그림 4-2] 김성민, 블로그 운영 사례, cafe.naver.com/jejugul



[그림 4-3] 김성민, 자체 쇼핑몰 운영 사례

원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주민 스스로가 끊임없이 자원을 개발하고 연구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촌관광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자원들을 연결하여 고객의 니즈(needs)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표 4-5> 한경면 청수리 주민의 주 소득원 및 소득 수준

(단위 : 명)

구분		빈도	비율(%)
소득원	농축산업	53	78
	음식, 숙박 외	-	-
	유통업	2	3
	기업체 및 공무	7	10
	기타	6	9
연간소득	2천~3천	16	24
	3천~4천	13	19
	4천~5천	23	34
	5천~6천	11	16
	6천 이상	5	7

마을주민의 현재 소득수준에 관한 질문에는 2천~3천 16명(24%), 3천~4천 13명(19%), 4천~5천 23명(34%), 5천 이상 16명(23%)으로 4~5천의 수준이 가장 많았다<표 4-5>. 이는 마을의 청장년층은 기존의 밭작물 재배나 자연 재배식 방법이 아닌 하우스 등의 시설을 이용한 한라봉이나 천혜향, 키위 등의 특화 작물 재배로 인한 고부가가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마을주민의 주 소득원과 소득수준은 현재 농촌관광의 진행척도가 될 수 있다. 농촌관광의 주된 목적이 결국 소득의 창출이라는 점에서 볼 때 관광객의 유입으로 인한 농가의 농외 소득이 과거보다는 높아져야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과의 농외 소득 차이는 현저하다. 결국 농가의 농

외 소득 증대는 농촌관광의 주목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선진국 수준까지 증가시켜 나가야 한다.

2) 녹색농촌체험마을에 관한 인식

청수리 주민의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인식은 무척 높게 나타났다. ‘알고 있다’는 58명(86%)이고 ‘모른다’는 10명(14%)로 나타나 마을주민의 대다수가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찬성이 67명(98%), 반대가 1명(2%)로 대다수가 찬성하였고 반대한 주민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사업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대답은 52명(76%)지만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주민은 9명(17%)로 많지 않았다<표 4-6>. 설문 도중 간단한 인터뷰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어떤 방법으로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농촌관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 하였다.

<표 4-6> 한경면 청수리 녹색농촌체험마을에 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빈도	비율(%)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인식	알고 있다	58	86
	모른다	10	14
찬성.반대	찬성	67	98
	반대	1	2
사업참여	직접 관여	8	12
	사업내용 인지	52	76
	관심 없다	8	12

농촌관광의 활성화에 있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함은 인정하나 농촌사회의 사회적 여건상 농촌관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재가 부족하여 교육 기반이 되어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도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과 시스템으로 농촌관광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홍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으로 판단된다.

3) 마을회의 참여 인식

녹색농촌체험마을의 계획단계 및 실행단계에서 사업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절차인 회의의 참석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37명(54%)가 ‘항상 참여하거나 거의 참여 한다’ 고 답했다. 또한 회의참여시 활동수준으로는 응답자의 17%가 의견이나 제안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찬성·반대 표결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주로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7>. 회의참여가 사업의 방향이나 목적 수립 등 사업의 기초를 수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계임을 감안할 때 회의의 참여도가 57%로 대체로 높은 편이고 의견이나 제안활동을 하는 적극적인 참여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회의 관련 설문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마을 사업 전반에 걸친 회의를 포함한다.

<표 4-7>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의 참여 인식

(단위 : 명)

구분		빈도	비율(%)
회의의 인식	매우 중요하다	41	60
	그저그렇다	24	35
	중요하지 않다	3	5
마을회의 참석여부	항상 참여한다	11	16
	거의 참여한다	26	38
	가끔씩 참여한다	12	17
	관심없다	18	26
회의참여 활동	의견이나 제안 제시	12	17
	찬성,반대등의 표결	32	50
	참여만 한다	9	13
	관심없다	17	25

4)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활성화 방안 인식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에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에 관한 질문에는 ‘선진농촌 견학 후 안목을 높인다’ 라는 의견이 30명(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는 의견이 20명(30%)로 그 다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지역주민이 사업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설문과 다소 상이하다<표 4-8>. 이는 설문도중 간단한 인터뷰결과 현재 농촌에는 농촌관광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전문가와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지역주민도 농촌관광이 타 관광과 달리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고는 있었다. 하지만 지역주민만으로는 시간적 여유와 전문가적 자질이 부족하여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줘야만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표 4-8> 한경면 청수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활성화 방안 인식

(단위 : 명)

구분		빈도	비율(%)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선진농촌 견학확대	30	44
	금전적인 보상	9	13
	정기적인 교육	9	13
	정부의 지원	20	30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활성화 방안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32	47
	사업을 이끌어 나갈 리더가 중요	16	23
	마을의 자원개발이 중요	6	9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14	21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추진 주체	전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40	59
	이장을 비롯한 주축이 추진	12	17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	16	24

본 연구의 주요 의제는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정부의 지원 정도였는데 지역주민의 의견대로라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을 비롯한 농촌개발은 정부의 지원 없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 된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은 기존의 정부주도의 하향식 사업을 탈피하여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획된 사업임을 감안할 때 아직 제주의 농촌사회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의 개념이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과는 별개로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에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라는 답변이 32명(47%)이 가장 높았고 ‘사업을 이끌어갈 리더가 중요하다’ 라는 답변이 16명(23%), ‘마을의 자원개발이 중요하다’ 라는 답변이 6명(9%),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라는 답변이 14명(21%)로 나타났다. 이 설문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자체가 활성화되기 위해 어떠한 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이었는데 마을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고 또한 사업을 이끌어갈 리더와 마을자원의 개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실질적으로 청수리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위원장님과 인터뷰와 몇몇 청년들과의 인터뷰에도 나타났듯이 실질적인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만의 영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속 가능한 사업이 영위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리더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추진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설문에는 ‘전 주민이 적극적인 참여가 바람직하다’ 라는 의견이 40명(59%), ‘이장을 비롯한 주축이 추진하는 게 효과적이다’ 라는 의견이 12명(17%)으로 마을주민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74%를 나타내어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 16명(2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지원과 주도도 중요하지만 마을주민이 주축이 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기타 의견으로는 도시지역 및 지역단체와 결연 등을 통한 유대를 강화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5)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기대 인식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이 마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인식으로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발전했다’ 라는 의견이 30명(44%)로 나타났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가 37명(5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안 하는 게 나을 뻔 했다’ 는 1명(2%)으로 적게 나타나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을 각각 나타내고 있었다<표 4-9>.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으로 인한 기대에는 ‘관광객의 유입으로 인한 수익이 증가할 것이다’ 가 21명(31%)로 나타났고 ‘마을의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8명(12%)으로 나타나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는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각종 박물관이나 숙박업 등이 생겨나 지가가 상당히 높게 올랐으나 이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과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마을에 인구가 유입되어 활기가 생길 것이다’ 라는 의견에는 33명(4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마을주민의 대체적인 생각이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으로 마을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이 생기길 희망하고 인구가 유입되어 마을에 활기가 생기길 희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9> 한경면 청수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기대 인식

(단위 : 명)

구분		빈도	비율(%)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으로 인한 현재의 의견	경제적·문화적으로 발전했다	30	44
	크게 달라진 게 없다	37	54
	안 하는게 나을 뻔 했다	1	1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으로 인한 기대	관광객의 유입으로 인한 수익 증가	21	31
	관광지의 개발로 지가 상승	8	12
	마을의 인구유입	33	49
	기타	5	8

기타의견으로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이 경제적·문화적 발전보다 마을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큰 효과가 있었고 ‘농촌마을 주민들의 의식 개혁에 많은 효과가 있었다’ 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는데 타지인의 무분별한 귀농증가로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6)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참여 및 역할

청수리 주민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 참여 및 역할로는 ‘자체적인 계획을 구상했다’ 라는 답변이 8명(12%)이며 ‘새로운 계획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는 의견이 12명(18%), ‘교육의 참가나 선진마을을 견학했다’ 라는 의견이 24명(33%)로 나타났으며 ‘참여하지 않았다’ 라는 답변이 25명(37%)로 나타났다<표 4-10>. 어떠한 형태로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63%로 나타나 비교적 참여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한경면 청수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참여 및 역할

(단위 : 명)

구분		빈도	비율(%)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 참여 역할	자체적인 계획 구상(민박 등)	8	12
	새로운 계획이나 아이디어 제시	12	18
	마을이나 정부의 교육 참가	16	23
	선진마을 견학	7	10
	참여하지 않았다	25	37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 참여 이유	고객유치로 인한 소득증대	11	16
	마을의 장래를 위해서	23	33
	마을공동의 일이라 빠질 수가 없어서	7	11
	참여하지 않는다	27	40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는 ‘마을의 장래를 위해서’ 라는 답변

이 23명(33%)로 가장 많았고 ‘고객유치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라는 답변이 11명(16%), ‘마을공동의 일이라 빠질 수 없어서’ 라는 답변이 7명(11%)으로 나타났다. 마을이 계속적으로 고령화되고 농촌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마을의 장래를 걱정하는 주민이 많았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을 통하여 마을을 홍보하고 개발하여 외부인구의 유입으로 지역경제는 활성화는 물론이며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농촌사회에 생기를 불어 넣어야겠다고 생각한다는 생각이 전체적으로 많았다.

7) 소결

한경면 청수리 주민을 대상으로 한 녹색농촌체험마을 인식실태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첫째, 한경면 청수리의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인식은 무척 높게 나타났다. ‘알고 있다’ 가 86%로 나타나 마을주민의 대다수가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리고 찬성이 98%로 반대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사업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대답은 76%지만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주민은 12%로 비교적 저조하게 나타났다. 그 이유를 어떤 방법으로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농촌관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농촌관광의 활성화에 있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함은 인정하나 농촌사회의 사회적 여건상 농촌관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재가 부족하고 교육 기반이 되어있지 않아 실질적인 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수리 주민이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는 ‘마을의 장래를 위해서’ 라는 답변이 33%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고객유치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라는 답변과 ‘마을공동의 일이라 빠질 수 없어서’ 라는 답변이 있었다. 이는 마을이 계속적으로 고령화되고 농촌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마을의 장래를 걱정하는 주민이 많음을 나타내었다. 또한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을 통하여 마을을 홍보하고 개발하여 외부인구의 유입으로 지역경제는 활성화는 물론이며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농촌사회에 생기를 불어넣어야겠다고 생각한다는 생각이 전체적으로 많아 마을주민이 마을에 갖는 애착이 많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이 마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인식으로는 ‘경제적으

로나 문화적으로나 발전했다’ 라는 의견이 44%로 나타났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가 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마을주민이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을 각각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으로 인한 기대에는 ‘관광객의 유입으로 인한 수익이 증가할 것이다’ 가 31%로 나타났고 ‘마을의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8명(12%)으로 나타나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는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마을에 인구가 유입되어 활기가 생길 것이다’ 라는 의견에는 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마을주민의 대체적인 생각이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으로 마을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이 생기길 희망하고 인구가 유입되어 마을에 활기가 생기길 희망하나 현재의 성과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판단하는 주민과 그래도 사업을 추진하기 전보다는 훨씬 발전했다는 판단이 각각 있음을 보여주었다.

넷째,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에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에 관한 질문에는 ‘선진농촌 견학 후 안목을 높인다’ 라는 의견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는 의견이 30%로 그 다음 높게 나타났는데 설문도중 간단한 인터뷰 결과 현재 농촌에는 농촌관광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전문가와 시간적 여유가 없어 지속 가능한 개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역주민도 농촌관광이 타 관광과 달리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고는 있었다. 하지만 지역주민만으로는 시간적 여유와 교육이 부족하여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줘야만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정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을 비롯한 농촌개발은 정부의 지원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 된다. 마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은 적극적인 참여의 준비가 되어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데 이는 농촌사회의 지역개발과 정부의 지원이 어떻게 조화롭게 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정립하는 것이 숙제로 남게 된다.

다섯째,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추진 주체에 관한 설문에는 ‘전 주민이 적극

적인 참여가 바람직하다’ 라는 의견이 59%, ‘이장을 비롯한 주축이 추진하는 게 효과적이다’ 라는 의견이 17%로 마을주민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76%를 나타내어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 24%보다 높게 나타냈는데 이는 정부의 지원과 주도도 중요하지만 마을주민이 주축이 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역주민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섯째,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질문에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라는 답변이 47%로 가장 높았고, ‘사업을 이끌어갈 리더가 중요하다’ 라는 답변이 23%, ‘마을의 자원개발이 중요하다’ 라는 답변이 9%,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라는 답변이 21%로 나타났다. 이 설문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자체가 활성화되기 위해 어떠한 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이었는데 마을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고 또한 사업을 이끌어갈 리더와 마을자원의 개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실질적으로 청수리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위원장님과의 인터뷰와 몇몇 청년들과의 인터뷰에도 나타났듯이 실질적인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만의 영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속 가능한 사업이 영위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리더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은 대다수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속가능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효과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는 물론이고 각종 마을 자원의 개발, 전문성을 갖춘 리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서로 유기적으로 융합되어야만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2. 저지리 주민의 참여인식 현황



[그림 4-4] 한경면 저지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입구

1) 마을주민의 주 소득원 및 소득 수준

주민들의 주 소득원과 소득금액을 질문한 결과 농축산업 44명(70%)로 가장 많았고 음식 숙박 및 유통업 6명(9%), 기업체 및 공무가 5명(8%), 기타 8명(13%)으로 나타났다<표 4-11>. 농축산업의 비중이 한경면 청수리가 78%와 비교하여 12%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데 저지리가 청수리에 비해 지역발전 면에서나 유동인구, 사업체 등이 훨씬 증가하였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저지리의 경우는 최근 딸기체험농장이 생겨나 도시민들이 직접 딸기 농장을 방문하여 따보기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고 산지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매도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확대시키고 있다. 딸기 체험 농장에는 주에 4~500여명이 방문하여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마을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고양일씨는 딸기체험 농장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마을의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 형식의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마을주민의 현재 소득수준에 관한 질문에는 2천~3천 24명(38%), 3천~4천 18명(28%), 4천~5천 6명(10%), 5천 이상 15명(24%)으로 5천 이상의 수준

이 가장 많았다.



[그림 4-5] 고양일, 딸기 체험 농장 운영 사례

이는 청수리와 마찬가지로 마을의 청장년층이 기존의 밭작물재배나 채래식 재배식 방법이 아닌 하우스 등의 시설을 이용한 한라봉이나 천혜향, 키위 등의 특이 작물 재배로 인한 고부가가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표 4-11> 한경면 저지리 마을주민의 주 소득원 및 소득 수준 (단위:명)

구분		빈도	비율(%)
소득원	농축산업	44	70
	음식, 숙박 외	4	6
	유통업	2	3
	기업체 및 공무	5	8
	기타	8	13
연간소득	2천~3천	24	38
	3천~4천	18	28
	4천~5천	6	10
	5천~6천	6	10
	6천 이상	9	14

2) 녹색농촌체험마을에 관한 인식

<표 4-12> 환경면 저지리 녹색농촌체험마을에 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빈도	비율(%)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 인식	알고 있다	59	93
	모른다	4	7
찬성·반대	찬성	62	98
	반대	1	2
사업참여	직접 관여	5	8
	사업내용 인지	51	81
	관심 없다	7	11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인식은 무척 높게 나타났다<표 4-12>. 총 63명중 ‘알고 있다’ 는 59명(93%)이고 ‘모른다’ 는 4명(7%)로 나타나 마을주민의 대다수가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리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에 대한 찬성이 62명(98%), 반대가 1명(2%)로 대다수의 주민이 찬성하였고 반대한 주민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청수리와 마찬가지로 아쉬웠던 점은 사업내용에 대해서 관여하고 인지하는 인원은 51명(81%)지만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주민은 5명(8%)로 많지 않았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이 2006년에 도입되어 올해로 9년째에 접어들어 사업내용이 초반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새로운 테마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2013년 저지리를 찾은 관광객은 12,670명으로 당일체험이 11,885명, 숙박이 505명, 견학이 280명으로 집계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딸기체험, 감귤따기 체험, 보리빵쿠키 체험, 초콜렛 만들기 체험, 석부작 체험, 천연염색체험 등이 있었다.

3) 마을회의 참여인식

녹색농촌체험마을의 계획단계 및 실행단계에서 사업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절차인 회의의 참석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항상 참여하거나 거의 참여 한다'가 35명(56%)로 나타났고 '가끔씩 참여하거나 관심 없다'가 28명(44%)로 나타났다<표 4-13>.

<표 4-13> 한경면 저지리 마을회의 참여 인식

(단위 : 명)

구분		빈도	비율(%)
회의의 중요도 인식	매우 중요하다	26	41
	그저 그렇다	35	56
	중요하지 않다	2	3
마을회의 참석여부	항상 참여 한다	3	5
	거의 참여 한다	32	51
	가끔씩 참여 한다	12	19
	관심 없다	16	25
회의참여 활동	의견이나 제안 제시	14	22
	찬성,반대등의 표결	7	11
	참여만 한다	28	45
	관심 없다	14	22

참여시 활동수준으로는 응답자의 22%가 의견이나 제안활동을 하고 '찬성·반대 표결이나 참여만 한다'가 35명(56%)로 나타났다. 회의참여 정도가 한경면 청수리가 54%인 반면 저지리의 참여율이 78%로 나타나 청수리보다 20%이상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의견이나 제안활동을 하는 적극적인 참여도는 청수리의 17%와 저지리의 22%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4)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활성화 방안 인식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에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에 관한 질문에는 ‘선진농촌 견학 후 안목을 높인다’ 라는 의견이 18명(29%)로 나타났고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라는 의견이 20명(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의견이 7명(11%),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의견이 18명(28%)로 나타났다<표 4-14>.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청수리 주민이 ‘선진농촌 견학 후 안목을 높인다’ 라는 의견이 청수리가 44%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저지리는 29%로 나타나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정부의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금전적인 보상은 청수리와 마찬가지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14> 한경면 저지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활성화 방안 인식

(단위 : 명)

구분		빈도	비율(%)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선진농촌 견학확대	18	29
	금전적인 보상	7	11
	정기적인 교육	18	28
	정부의 지원	20	32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활성화 방안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25	40
	사업을 이끌어 나갈 리더가 중요	22	35
	마을의 자원개발이 중요	9	14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7	11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추진 주체	전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38	60
	이장을 비롯한 주축이 추진	16	25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	9	14

청수리와 마찬가지로 저지리 주민도 농촌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

민만으로는 시간적 여유와 전문가적 자질이 부족하여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줘야만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에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라는 답변이 25명(40%)과 ‘사업을 이끌어갈 능력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라는 의견이 22명(35%)로 동일하게 가장 높았고 ‘마을의 자원개발이 중요하다’ 라는 답변이 9명(14%)로 나타났다. 이 설문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자체가 활성화되기 위해 어떠한 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이었는데 마을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고 또한 사업을 이끌어갈 리더와 마을자원의 개발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 설문은 청수리와 마찬가지로 농촌관광이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만의 영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속 가능한 사업이 영위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리더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추진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설문에는 ‘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바람직하다’ 라는 의견이 38명(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장을 비롯한 주축이 추진하는 게 효과적이다’ 라는 의견이 22명(35%)으로 나타났고 ‘정부가 주도해야 효과적이다’ 라는 의견이 9명(1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마을 이장을 비롯한 마을주민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 라는 의견이 전체의 85%를 나타내어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 1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지원과 주도도 중요하지만 마을주민이 주축이 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5)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기대 인식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이 마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인식으로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발전했다’ 라는 의견이 34명(54%)로 나타났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가 29명(46%)으로 나타났다. 청수리가 긍정 44%, 부정 54%에 비해 긍정적인 면이 저지리가 청수리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4-15>. 저지리 또한 청

수리 마찬가지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을 각각 나타내고 있었다.

<표 4-15> 한경면 저지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기대 인식

(단위 : 명)

구분		빈도	비율(%)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으로 인한 현재의 의견	경제적·문화적으로 발전했다	34	54
	크게 달라진 게 없다	29	46
	안하는게 나을뿐했다	-	-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으로 인한 기대	관광객의 유입으로 인한 수익 증가	30	47
	관광지의 개발로 지가 상승	2	3
	마을의 인구유입	28	45
	기타	3	5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으로 인한 기대에는 ‘관광객의 유입으로 인한 수익이 증가할 것이다’가 30명(47%)로 나타났고 ‘마을의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2명(3%)으로 나타나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는 청수리와 동일하게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지리는 과거와는 달리 최근 저지오름이나 올레길, 각종 박물관등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숙박시설이나 식당 등이 생겨나 지가가 상당히 높게 올랐다. 이는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보다 관광객의 유입으로 인한 수익사업에 기대가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마을에 인구가 유입되어 활기가 생길 것이다’라는 의견에는 28명(45%)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수리와 마찬가지로 마을주민의 대체적인 생각이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으로 마을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이 생기길 희망하고 인구가 유입되어 마을에 활기가 생기길 희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참여 및 역할

저지리 주민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 및 참여 역할로는 ‘자체적인 계획을 구

상했다’ 라는 답변이 11명(17%)이며 ‘새로운 계획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는 의견이 3명(5%), 교육의 참가나 ‘선진마을을 견학했다’ 라는 의견이 20명(32%)로 나타났으며 ‘참여하지 않았다’ 라는 답변이 29명(46%)로 나타났다 <표 4-16>. 청수리 주민의 참여율이 63%인 반면 저지리 주민의 참여율이 54% 나타나 전체적인 참여율은 청수리 주민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한경면 저지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참여 및 역할

(단위 : 명)

구분		빈도	비율(%)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참여 역할	자체적인 계획 구상(민박 등)	11	17
	새로운 계획이나 아이디어 제시	3	5
	마을이나 정부의 교육 참가	15	24
	선진마을 견학	5	8
	참여하지 않았다	29	46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 참여 이유	고객유치로 인한 소득증대	12	19
	마을의 장래를 위해서	21	33
	마을공동의 일이라 빠질 수가 없어서	16	26
	참여하지 않는다	14	22

한경면 저지리 주민이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는 ‘마을의 장래를 위해서’ 라는 답변이 21명(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마을공동의 일이라 빠질 수 없어서’ 라는 답변이 16명(26%)으로 많았고 ‘고객유치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라는 답변이 12명(19%)으로 나타났다. 청수리와 마찬가지로 마을이 계속적으로 고령화되고 농촌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마을의 장래를 걱정하는 주민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마을공동의 일이라 빠질 수가 없어서’ 라는 답변이 26%로 나타났는데 청수리가 11%를 나타낸 것과 비교 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설문 시 간단한 인터뷰 결과 현재 저지리는 청수리에 비해 상당히 많은 사업체(카페 및 숙박업 등)와 기업체(박물관 등)등

이 입점해 있고 회의체에 대한 결속력이 높다고 하였다.

7) 소결

한경면 저지리 주민을 대상으로 한 녹색농촌체험마을 인식실태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첫째, 한경면 저지리의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인식은 무척 높게 나타났다. ‘알고 있다’가 93%로 나타나 마을주민의 대다수가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찬성 또한 98%로 나타나 반대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사업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대답은 81%지만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주민은 8%로 비교적 저조하게 나타났다.

둘째, 저지리 주민이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는 ‘마을의 장래를 위해서’라는 답변이 33%로 가장 많았고 ‘마을공동의 일이라 빠질 수가 없어서’라는 의견이 26%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고객유치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라는 답변은 19%로 나타났다. 이는 청수리와 마찬가지로 농촌마을의 공통적인 문제인 농촌사회의 고령화와 농촌인구가 감소로 마을의 장래를 걱정하는 주민이 많고 마을에 애착을 갖는 주민이 많음을 나타내었다.

셋째,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이 마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인식으로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발전했다’라는 의견이 54%로 나타나 청수리 주민이 느끼는 4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가 46%로 청수리 주민이 느끼는 54%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이는 마을 별로 차이는 있으나 마을주민이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을 각각 나타내고 있는데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성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음을 느끼고 있었다. 사업초기 정부의 지원과 주민의 열정적인 참여가 있어 마을의 발전에 큰 기대가 있었으나 개발방식이 형식에 그치고 눈에 보이는 경제적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거나 그 성과가 개개인에게 분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2006년 저지리가 초기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위원회 회원이 40여명을 넘었으나 불과 2년 전에는 15명 내외로 감소한 것이 기대만큼 성과가 없고 개발방식이 형식에 그쳐 사업을 지속할 의지가 없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으로 인한 기대에는 ‘관광객의 유입으로 인한 수익이 증가할

것이다’ 는 47%로 나타나 청수리 주민이 느끼는 3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마을의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의견은 3%로 청수리와(9%) 비슷하게 나타나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는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 마을에 인구가 유입되어 활기가 생길 것이다’ 라는 의견에는 45%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마을주민의 대체적인 생각이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으로 마을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이 생기길 희망하고 인구가 유입되어 마을에 활기가 생기길 희망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현재의 성과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판단하는 주민과 그래도 사업을 추진하기 전보다는 훨씬 발전했다는 판단이 각각 있음을 보여주었다.

넷째,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에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에 관한 질문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라는 의견이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선진농촌 견학 후 안목을 높인다’ 라는 의견이 29%로 나타났는데 청수리가 44%를 보인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현재 저지리에는 농촌관광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전문가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지역주민만으로는 시간적 여유와 전문가적 자질이 부족하여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줘야만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은 청수리와 동일하였다.

다섯째,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추진 주체에 관한 설문에는 ’전 주민이 적극적인 참여가 바람직하다’ 라는 의견이 60%로 청수리의 59%와 비슷하게 나왔고 ’이장을 비롯한 주축이 추진하는 게 효과적이다’ 라는 의견이 25%로 청수리의 17%보다 높게 나왔다. ’이장을 비롯한 마을주민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 는 의견이 전체의 85% 나타내어 청수리의 76%보다 높게 나왔다. 이는 저지리와 청수리 주민이 느끼는 지역개발이 정부의 지원과 주도도 중요하지만 마을주민이 주축이 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추진 주체가 지역주민이어야 한다는 뜻이며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선진농촌 견학활동, 정기적인 교육이 뒷받침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여섯째,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질문에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라는 답변이 40%로 나타나 청수리 주민의 47%보다 다소

낮게 나왔고 ‘사업을 이끌어갈 리더가 중요하다’ 라는 답변이 35로 청수리 주민의 23%보다 높게 나왔다. ‘마을의 자원개발이 중요하다’ 라는 답변이 14%를 나타내었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라는 답변이 11%로 청수리 주민의 24%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이는 답변자 연령층의 차이로 인한 수치로 예상되는데 청년층은 지역주민이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반면 장년층은 지역주민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제 3절 가설의 검증

인구 통계학적 특성 즉, 성별, 연령, 거주년수, 소득별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 Anova, 사후검증으로는 Scheffe 검증을 사용하여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t-test는 두 개의 집단간을 평균값을 이용하여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을 이야기 하며 Anova test는 비교 집단이 3개 이상일대 사용되어지는 사회통계학적 기법을 이야기 한다.

1.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라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1) 연령에 따른 녹색농촌체험마을 인식 차이

연령에 따른 녹색농촌 체험마을 인식차이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하여 Anova test, 사후검증인 Scheffe 를 사용하여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4-17>와 같다.

<표 4-17 > 연령에 따른 녹색농촌체험마을 인식 차이

요인명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사업선정에 따른 인식	30 대	33	2.0707	.55751	3.849	.006**	-
	40 대	53	1.8113	.56428			
	50 대	25	1.6267	.55544			
	60 대	6	1.3889	.32773			
	70 대이상	14	2.0238	.51415			
회의참여 수준	30 대	33	3.7576	1.34699	4.528	.002**	a>c
	40 대	53	2.9623	1.41370			
	50 대	25	2.4400	1.32539			
	60 대	6	2.1667	.75277			
	70 대이상	14	3.4286	1.28388			
활성화 방안	30 대	33	1.9470	.75456	2.722	.032*	-
	40 대	53	1.7311	.56084			
	50 대	25	2.1000	.58184			
	60 대	6	1.7500	.41833			
	70 대이상	14	2.2857	.94491			
기대인식	30 대	33	2.1364	.56282	1.965	.104	□
	40 대	53	2.3585	.78677			
	50 대	25	2.3600	.83566			
	60 대	6	2.0000	.63246			
	70 대이상	14	2.7500	.87156			
사업참여 및 역할	30 대	33	3.5657	.76596	5.359	.001**	a>b.c
	40 대	53	3.0000	.85235			
	50 대	25	2.7200	.74957			
	60 대	6	2.7222	1.06284			
	70 대이상	14	3.4762	.72459			

**p<0.01, *p<0.05

세부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사업선정에 따른 인식은 $p < 0.05$ 로 나타나 통계적 유의미한 수치를 도출하였으나 사후검증인 Scheffe 에서는 나이에 따른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회의참여수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p 값이 0.002로 나타났다으며 사후검증에서는 30 대 집단과 50 대 집단 간 회의참여수준에 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분석에서는 p 값이 0.05 이하로 나타나 연령에 따른 인식차이가 나타났으며 사업 참여 및 역할에 대한 분

석에서도 p 값이 0.05 이하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다만 기대인식에 대한 연령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성별에 따른 녹색농촌체험마을 인식 차이

성별에 따른 녹색농촌체험마을 인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 를 실시한 결과 <표 4-18>와 같으나 p 값이 모두 0.05 이상으로 성별에 따른 사업선정에 따른 인식, 회의 참여 정도, 활성화 방안, 기대인식, 사업 참여 및 역할에 대한 차이는 발견할 수가 없었다.

<표 4-18 > 성별에 따른 녹색농촌체험마을 인식 차이

요인	설문	N	평균	표준편차	t	p
사업선정에 따른 인식	남	79	1.8143	.57673	-.750	.455
	여	52	1.8910	.56677		
회의참여 정도	남	79	2.3861	.98531	-.654	.514
	여	52	2.4952	.84958		
활성화 방안	남	79	1.8259	.71202	-1.890	.061
	여	52	2.0529	.60702		
기대인식	남	79	2.2975	.77011	-.569	.571
	여	52	2.3750	.75326		
사업참여 및 역할	남	79	3.1561	.87027	.472	.638
	여	52	3.0833	.85527		

**p<0.01, *p<0.05

3) 거주 년수에 따른 녹색농촌체험마을 인식 차이

거주 년수에 따른 녹색농촌체험 마을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4-19>와 같다. 세부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사업선정에 따른 인식과 사업참여 및 역할에 대해서만 p 값이 0.05 이하로 나타나 거주 년수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지만 회의참여 수준과 활성화 방안, 기대인식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19 > 거주 년수에 따른 녹색농촌체험마을 인식 차이

요인명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사업선정에 따른 인식	5년미만	21	2.2063	.54238	4.361	.002**	a>d
	5-10년미만	18	1.8519	.74292			
	10-20년	21	1.9048	.43644			
	20년이상	31	1.5699	.44881			
	태어나면서부터	40	1.8333	.55981			
회의참여수준	5년미만	21	3.5238	1.20909	1.250	.293	□
	5-10년미만	18	3.0000	1.57181			
	10-20년	21	3.3333	1.39044			
	20년이상	31	2.7097	1.34644			
	태어나면서부터	40	3.0250	1.49336			
활성화 방안	5년미만	21	2.0357	.88135	.932	.447	□
	5-10년미만	18	1.7639	.67231			
	10-20년	21	1.7500	.48734			
	20년이상	31	1.9032	.46850			
	태어나면서부터	40	2.0188	.77911			
기대인식	5년미만	21	2.1905	.67964	1.172	.326	□
	5-10년미만	18	2.2778	.79005			
	10-20년	21	2.5238	.64180			
	20년이상	31	2.1613	.69985			
	태어나면서부터	40	2.4500	.87560			
사업참여 및 역할	5년미만	21	3.5873	.71418	3.717	.007**	a>b
	5-10년미만	18	2.7407	1.01978			
	10-20년	21	3.3651	.78106			
	20년이상	31	2.8817	.77721			
	태어나면서부터	40	3.1250	.84963			

**p<0.01, *p<0.05

4) 직업에 따른 녹색농촌체험마을 인식 차이

<표 4-20> 직업에 따른 녹색농촌체험마을 인식 차이

요인명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사업선정에 따른 인식	농축산업	97	1.7629	.55477	3.056	.019*	-
	음식숙박	4	2.3333	.81650			
	유통업	4	2.5000	.63828			
	기업체공무원	12	1.9722	.45965			
	기타	14	1.9762	.53051			
회의참여수준	농축산업	97	2.8557	1.39186	3.132	.017*	-
	음식숙박	4	3.2500	1.50000			
	유통업	4	4.0000	1.15470			
	기업체공무원	12	4.1667	1.11464			
	기타	14	3.3571	1.44686			
활성화 방안	농축산업	97	1.9330	.68514	3.344	.012*	b,d<c
	음식숙박	4	1.3750	.14434			
	유통업	4	2.8750	.92421			
	기업체공무원	12	1.6458	.51631			
	기타	14	1.9107	.52447			
기대인식	농축산업	97	2.3660	.73071	.765	.550	□
	음식숙박	4	2.5000	1.08012			
	유통업	4	1.8750	.47871			
	기업체공무원	12	2.3750	.88227			
	기타	14	2.1071	.85886			
사업참여 및 역할	농축산업	97	3.0309	.86346	3.771	.006**	-
	음식숙박	4	2.4167	.56928			
	유통업	4	4.0833	.50000			
	기업체공무원	12	3.6667	.42640			
	기타	14	3.2619	.91687			

**p<0.01, *p<0.05

직업에 따른 녹색농촌체험마을 인식차이에 대한 분석의 결과 <표 4-20>와 같다. 사업선정에 따른 인식에서는 p 값 0.019, 회의참여수준에서는 p 값 0.017로 나타났으며 활성화 방안에 따른 직업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p 값 0.012의 통계적 유의미한 수치를 도출하였으며 사후검증에서는 음식, 숙박, 기업체 공무원집단과 유통업 집단 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또한 사업 참여 및 역할에 대한 분석에서도 p 값 0.006로 나타나 직업에 따른 인식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기대인식에서는 p 값 0.550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소득에 따른 녹색농촌체험마을 인식 차이

소득에 따른 녹색농촌체험마을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4-21>와 같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선정에 따른 인식은 p 값 0.003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에서는 년 소득이 2-3 천만원 그룹과 4-5 천만원 그룹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또한 회의참여 수준과 사업 참여 및 역할에서도 p 값 0.003과 0.02로 각각 나타나 소득에 따른 인식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활성화 방안과 기대인식에서는 p 값 0.05 이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표 4-21> 소득에 따른 녹색농촌체험마을 인식 차이

요인명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사업선정에 따른 인식	2-3 천만원	40	2.0583	.56934	4.315	.003**	a>d
	3-4 천만원	31	1.9032	.48069			
	4-5 천만원	29	1.8276	.50882			
	5-6 천만원	17	1.4902	.61371			
	6 천이상	14	1.5714	.59094			
회의참여수준	2-3 천만원	40	3.4000	1.17233	4.154	.003**	-
	3-4 천만원	31	3.4839	1.33843			
	4-5 천만원	29	3.0690	1.48639			

	5-6 천만원	17	2.3529	1.36662			
	6 천이상	14	2.1429	1.56191			
활성화 방안	2-3 천만원	40	1.9875	.75734	.465	.762	□
	3-4 천만원	31	1.7903	.57044			
	4-5 천만원	29	1.9569	.71047			
	5-6 천만원	17	1.8529	.62537			
	6 천이상	14	1.9821	.71026			
기대인식	2-3 천만원	40	2.2500	.82431	.357	.839	□
	3-4 천만원	31	2.4516	.58245			
	4-5 천만원	29	2.3621	.69303			
	5-6 천만원	17	2.2647	.88596			
	6 천이상	14	2.2857	.95503			
사업참여 및 역할	2-3 천만원	40	3.3250	.82513	3.039	.020*	-
	3-4 천만원	31	3.1290	.84186			
	4-5 천만원	29	3.2989	.71461			
	5-6 천만원	17	2.8431	.87494			
	6 천이상	14	2.5476	1.02621			

**p<0.01, *p<0.05

2. 녹색농촌체험마을 인지 정도에 따른 두 마을간 인식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인지 정도에 따른 두 마을간 인식차이를 비교한 결과 <표 4-22>와 같다. 세부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청수리와 저지리의 인식차이에 대한 분석의 결과 p 값 0.279 로 나타나 두 마을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표 4-22> 인지 정도에 대한 청수리와 저지리 차이 분석 결과

요인명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농촌체험마을 인지 정도 차이	청수리	68	1.8971	.61019	1.088	.279
	저지리	63	1.7884	.52637		

**p<0.01, *p<0.05

3.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회의참여 정도에 따라 두 마을 간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회의참여 정도에 대한 청수리와 저지리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4-23>와 같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p 값 0.933 으로 나타나 두 마을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표 4-23> 회의 참여 정도에 대한 청수리, 저지리 차이 분석 결과

요인명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회의참여정도	청수리	68	2.4228	.94953	-.084	.933
	저지리	63	2.4365	.92017		

**p<0.01, *p<0.05

4.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두 마을간 인식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청수리와 저지리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4-24>와 같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p 값 0.941 로 나타나 두 마을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표 4-24> 활성화 방안에 대한 청수리, 저지리 차이 분석 결과

요인명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활성화 방안	청수리	68	1.9118	.72246	-.074	.941
	저지리	63	1.9206	.63472		

**p<0.01, *p<0.05

5.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으로 인한 기대인식에 따라 두 마을간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으로 인한 기대인식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와 같다. 세부적인 결과로는 청수리 평균 2.46, 저지리 평균 2.18로 나타났으며 테스트 결과 p 값 0.035로 나타나 청수리, 저지리 간 기대인식 차이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5> 기대인식 차이에 따른 청수리, 저지리 차이 분석 결과

요인명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기대인식차이	청수리	68	2.4632	.76936	2.137	.035*
	저지리	63	2.1825	.73123		

**p<0.01, *p<0.05

6. 녹색농촌체험을 사업 참여 및 역할에 대해 두 마을간 인식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녹색농촌체험 사업 참여 및 역할에 대한 분석의 결과 p 값 0.199로 나타나 청수리, 저지리의 사업 참여 및 역할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6> 사업참여 및 역할에 대한 청수리, 저지리 차이 분석 결과

요인명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사업참여및역할	청수리	68	3.2206	.91171	1.292	.199
	저지리	63	3.0265	.79942		

**p<0.01, *p<0.05

7. 직책 경험 유무에 따라 사업참여 정도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1) 직책 경험 유무에 따른 회의참여 정도

‘직책경험 유무에 따른 회의참여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표 4-27>와 같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p 값이 0.05 이하로 나타나 회의참여도에 따른 직책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표 4-27> 직책경험 유무에 따른 회의참여 정도의 차이

요인명	직책경험	N	평균	표준편차	t	p
회의참여정도	있음	41	1.8232	.83712	-5.577	.000**
	없음	90	2.7056	.84099		

**p<0.01, *p<0.05

2) 직책 경험 유무에 따른 회의참여 수준

직책경험 유무에 따른 회의참여 수준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28>과 같으며 p 값이 0.05 이하로 나타나 직책경험 유무에 따른 회의참여 수준의 차이는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표 4-28> 직책경험 유무별 사업참여 수준의 차이

요인명	직책경험	N	평균	표준편차	t	p
회의참여수준	있음	41	2.0488	1.28357	-6.404	.000**
	없음	90	3.5444	1.21933		

**p<0.01, *p<0.05

제 5장 결론

제 1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로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선정되어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한경면 저지리와 청수리를 표본 지역으로 선정하여 두 지역의 주민이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과 참여의지를 분석하여 두 마을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에 대해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와 빈도수가 필요하나 여러 여건상 2013년 마을별 방문객수와 지역주민 131명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마을을 찾는 방문객수는 저지리의 방문객수가 청수리의 방문객수에 비해 약 3배 수준인 12,670명으로 제주도내 녹색농촌체험 6개 마을의 전체 방문객인 81,432명의 15%에 달한다. 반면 거리의 차이가 불과 2km 이내에 위치해 있는 청수리는 4,469명으로 전체 방문객수의 5.5%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저지리의 28% 수준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차이의 원인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두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인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농촌관광의 수많은 성공요인 중에서 무엇이 가장 효과적이고 성공가능한지를 찾아내어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두 마을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인식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요인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으로 인한 기대인식에서 나타났다. 기대 인식조사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이 마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인식으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발전했다' 라는 의견이 34명(54%)로 나타났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가 29명(46%)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수리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발전했다' 라는 의견이 44%,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가 54%에 비해 긍정적인 면이 저지리가 청수리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의 인지 정도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인식, 사업 참여와 역할에 관한 인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두 마을은 경쟁관계에 있는 마을이기도 하지만 학교나 관공서, 은행이나 우체국 등 같은 생활권에 속해 있어 공생관계에 있기도 하다. 두 마을의 주민이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검증만으로도 충분히 연구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셋째,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인식 중 주민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에 관한 설문에는 선진농촌을 견학하여 안목을 높이고(청수리 44%, 저지리 29%) 농촌관광 마케팅이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청수리 13%, 저지리 28%),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청수리 30%, 저지리 32%)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금전적인 보상은 전체의 12%에 불과하였다. 전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은 공무원들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 마을에 정자를 짓고 도로를 확장하고 회관을 증축하는 등의 그런 식상한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작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농촌관광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과 마케팅 지식을 필요로 하였다. 그리고 선진농촌을 견학하고 그들의 시스템을 직접보고 느껴서 마을에 접목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선진농촌의 견학도 농촌관광 전문가가 있어야 견학프로그램을 세우고 리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농촌관광 관련 전문가의 존재가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발전에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두 마을 주민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설문에는 ‘마을의 장래를 위해서’ 라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가장 높아 마을에 대한 애착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방문객 유치를 통한 경제효과 창출’ 과 ‘마을의 일이라 빠질 수가 없어서 참여 한다’ 는 의견도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든지 참여한다는 답변이 청수리가 60%, 저지리가 78%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즉 ‘참여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이 청수리가 40%, 저지리가 22%를 나타내었다. 이와 반면 두 마을의 체험프로그램 운영이나 마을의 자원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저지리는 딸기체험과 굴따기 체험, 보리빵쿠키체험, 초콜렛 만들기 체험, 석부작 체험, 천연염색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있고 청수리는 농산물 수확체험, 공예체험, 석부작 체험, 굴따기 체험, 꽃자왈 체험, 승마 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의 질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청수리가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꽃자왈 체험과 승마체험은 타 지역에서는 체험해 볼 수 없는 청수리만이 갖고 있는 우수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원을 적극 홍보하고 개발하고 지역주민이 농촌개발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면 보다 많은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다섯째,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지역주민 회의참여 활동 중 직책경험 유무에 따른 「사업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나 아이디어나 제시함」을 비교해 본 결과 p값이 0.05 이하로 두 마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즉 직책을 맡은 경험이 있는 주민은 경험이 없는 주민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새로운 계획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 이장을 비롯한 청년회장, 부녀회장 등의 주요직책은 주민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쉽을 갖추고 자신을 희생하여 마을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하고 있다. 이들은 마을의 상위계층이라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직책이 없는 주민들보다 좀 더 사업에 대해 연구하게 되고 새로운 계획이나 제안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제 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젊은이들이 떠나고 고령화되어 일할 사람이 없어지고 학교가 폐교되어 마을이 낙후되길 희망하는 지역주민은 없을 것이다. 본인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어필하여 소속감을 높이고 마을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희생하여 좀 더 생기 넘치고 풍요로운 마을을 만드는 일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에 대한 현재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발전 했다’ 라는 의견이 청수리가 45%, 저지리가 57%로 나타났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와 ‘안 하는게 나을 뻔 했다’ 라는 의견이 청수리가 55%, 저지리가 43%를 나타내었다. 설문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어느 정도 마을을 이끌어 갈 청년층과 직책을 경험한 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50%을 나타냈다. 상위

계층의 의견에 비추어볼 때 나머지 주민들의 의견도 그리 긍정적이진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답변의 의도는 결국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이 생각보다 또는 처음의 장미빛 계획보다 크게 성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 이유는 두 마을의 사업초기 녹색농촌체험마을 인식 조사에서 사업에 대한 찬성율이 98%를 나타내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대다수가 찬성하였으나 사업이 10년째인 지금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농촌 사회는 이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잘 사는냐 못 사는냐의 선택은 이제 사치에 불과하며 미국과의 FTA와 중국과의 FTA 등으로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의 문제를 걱정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부모의 세대가 이제껏 별탈 없이 밭농사로 자식들 공부시키며 무난히 살아왔듯이 우리도 부모님 세대처럼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뒤돌아 봐야 한다.

내적·외적인 여러 이유로 이제 농촌사회는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고 않고 스스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농촌사회가 자생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선택의 폭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농촌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특화작물 재배를 끊임없이 확대해 나가야 하며 소단위 협동조합등을 활용하여 내부적 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전 주민이 적극 참여하여 마을의 자원을 개발하고 그 자원을 토대로 방문객을 유치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농산물의 직거래판매와 먹거리, 숙박 등의 소비를 유도하여 농가의 농업 외 소득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을 이끌 수 있는 훌륭한 리더도 중요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장래를 걱정하고 마을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마을 방문객의 선호 조사, 소비 성향, 마을에 대한 만족도와 재방문 유도 방안 등 많은 연구과제가 남아있으나 이는 다음 연구자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마을을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조금이나마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길 바라며 본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참고 문헌

<국내문헌>

- 강신겸.김정연(1997), 「녹색관광」,pp.27~28
- 강신겸(2002), 「마을단위 녹색관광개발의 추진과 과제」, 관광농업연구, 한국농촌관광학회, 제9권 제1호, pp.118~137
- 고병갑(2007), 「농촌관광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논문,pp21
- 곽행구.시영선(2008), 「전남지역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 전남발전연구원, pp7
- 구분기,손은호(2006), 「계절ARIMA 모형을 이용한 항공권판매액 예측」, 『관광연구』 21(1):81-96
- 김찬호(1997), 「후기 산업사회의 도시 재상과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pp.P73~77
- 류선무(2007), 「관광농업연구」,박산출판사,p23
- 문지환(2012), 「주민참여형 농촌마을만들기에 관한 연구:해남군 마을만들기 중심으로」, 광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대현(2009),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대불 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시현 외(2007), 「농촌관광:산업화를 위한 과제」,[농업전망],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pp.285
- 안종철 외(2003), 「관광단지 개발에 있어서 주민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도시연구보, 제14권, 도시연구학회 ,p.92
- 안종현(2008), 『농촌관광마을 만들기와 주민참여』,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오창명(1998), 『제주도 오름과 마을이름』,제주대학교 출판부,p 426
- 유상건(2006), 「농촌지역개발과 주민참여」,한국농어촌공사 학술대회 자료집, pp.5
- 이무희(2006), 『농촌관광개발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병기(2008), 「농촌계획제도의 정립방향에 관한 심포지움 자료집」, 대한국토 도시계획 학회, p.27
- 이샘 외(2009), 한국농어촌공사, www.welchon.com
- 이정록.안중현(2005), 「그린투어리즘과 관광마을 만들기:이론과 실제」, 지리학논총, 제 45호,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pp.200
- 이후석(2001), 「생태관광」, p.31~32
- 정현욱 외(2002), 「농촌개발을 위한 그린투어리즘과 지방정부의 역할」, 한국 지방자치 학회보, 제14권 제4호
- 조록환(2003), 「농촌관광사업 지역의 사회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11~13
- 최성애(2001), 「지속 가능한 어촌관광에 관한 고찰」, 해양수산, 제188호, pp.50~51
- 최상호(2004), 「지역사회개발론」, (박영사),P.240
- 허주열(200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 수준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민 블로그, cafe.naver.com/jejugul
- 농림수산식품부(2007), 「주민참여형 농촌마을 가꾸기」
- 농림부(2001), 「농외소득증대 중장기 추진계획」
- 농림부(2005), 「농산어촌체험마을사업에 관한 통합지침」
- 문화관광연구원(2005), 「향토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정책사업 추진방안 보고 서」
- 문화관광연구원(2005), 「정부부처간 관광개발사업 협력체계 구축방안보고서」
- 저지리(2007),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기본계획」 중 ‘마을유래’
- 저지리(2007),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신청서」
- 제주도(1997), 『제주의 오름』
- 제주대학교박물관(1998), 『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Ⅰ)』
- 청수리(2007),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신청서」 중 ‘마을위치 및 역사관련 설명내용.
- 한국관광공사(2008), 「농어촌 관광개발 활성화 방안연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4),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2013 운용·개발 연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7), 「한·미 FTA 영향분석 및 국내대책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3), 「농외소득 중대 정책 농업인 인식조사 외」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2007), 『한경면 역사문화지』

<외국문헌>

Nu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McGraw Hill.

Sharpley, R., 2002, 「Rural tourism and the challenge of tourism diversification:The case of Cypru, Tourism Management, 23(3),pp.233~244.

Van, D. V. & Ferry, J. (1980). Measuring and Assessing Organizations. New York: Wiley.

①	청수리
②	저지리

한경면 청수리.저지리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촌관광개발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라는 주제로 석사논문
문을 준비하고 있는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관광개발학과 문용철입니다. 본 설문
조사의 취지는 농촌관광개발에 있어 마을주민의 참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마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필요한 제도나 보완점이 무엇인
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저의 논문의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우리나라 농촌관광은
물론이고 마을의 관광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응답내용
은 오직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4년 01월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관광개발학과 석사과정 문용철

■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에 대한 인식 관련 설문조사 입니다.

1. 귀하는 이 마을이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①알고 있다 ②어느정도 알고있다 ③대체로 모른다 ④모른다

2. 마을이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되었을 당시 귀하의 입장은 어떠하셨습니
까?

①찬성 ②어느 정도 찬성 ③대체로 반대 ④반대

3.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 ① 기획 및 진행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
- ② 마을 회의 등에 참여하여 사업내용은 알고 있다
- ③ 어렵듯이 알고 있다
- ④ 관심 없다

■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절차인 회의진행과 관련된 설문입니다.

4. 회의 정보 취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선(전화 통보) ② 마을방송 ③ 지인 연락 ④ 알지 못한다
5. 회의의 중요도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매우 중요하다 ⑥ 어느 정도 중요하다 ⑦ 그저 그렇다 ⑧ 중요하지 않다
6. 귀하의 회의참여 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항상 참여 한다 ②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참여한다 ③ 참여하고 싶을 때만 한다 ④ 관심 없다
7. 귀하의 회의참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의견이나 제안 활동을 한다 ② 찬성, 반대 표결 등만 한다 ③ 다른 사람의 의견을 주로 듣는다 ④ 참여만 한다 ⑤ 관심 없다

■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설문입니다.

8.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누가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줘야 효과적이다

- ②마을이장을 비롯한 주축들이 진행하는 게 낫다
- ③전 주민이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 진행해 나가야 한다
- ④기타의견이 있다면(_____)

9.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되기 위해서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헌신,봉사)
- ②마을주민을 이끌고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확실한 리더가 있어야 한다
- ③자원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오름개발,숙박시설,체험시설 외)
- ④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관리,감독)
- ⑤기타(_____)

10.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에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선진농촌을 견학할 기회를 줘서 안목을 높인다
- ②금전적인 보상으로 참여동기를 부여한다(연수 및 포상등)
- ③정기적인 마을총회나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④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 ⑤기타(_____)

11.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저지리와 청수리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해야 한다(권역사업)
- ②통합보다는 회원들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해야 한다
- ③마을 사업으로 통합하여 모든 주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 ④기타(_____)

■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한 기대인식과 관한 설문조사입니다

12.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이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이 사업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①마을이 전보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훨씬 발전했다
- ②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어느 정도 발전했다
- ③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 ④오히려 안 하는 게 나을 뻔 했다
- ⑤기타(_____)

13. 사업으로 인하여 귀하의 마을이 개선되거나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①관광객의 유입으로 마을의 수익이 증가할 것이다
- ②관광지의 개발로 땅값이 올라갈 것이다
- ③마을에 인구가 유입되어 활기가 생길 것이다
- ④본인의 사업이 매출이 증가하여 수익이 많아질 것이다
- ⑤기타(_____)

■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참여 및 역할에 관한 설문조사입니다

14.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을 진행과정에서 귀하는 어떠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 ①사업에 자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구상했다(민박 및 식당 등)
- ②마을 회의 시 새로운 계획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 ③정부나 마을에서 실시되는 교육에 참여했다
- ④선진마을의 견학을 다녀왔다
- ⑤관심 없다/참여하지 않았다

15. 귀하가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에 참여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고객을 유치하여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 ②마을공동의 일이라 빠질 수가 없어서
- ③마을에서 나를 꼭 필요로 해서
- ④마을의 장래를 위해서(인구감소 등)
- ⑤관심 없다/참여하지 않았다
- ⑥기타(_____)

16.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미미하다 ②미미하다 ③보통이다 ④활발하다 ⑤매우 활발하다

■ 응답자 인적사항

17. 연령 :

- ①30대 ②40대 ③50대 ④60대 ⑤70대 이상

18. 성별 : ①남 ②여

19. 마을 거주 년수

- ①5년 미만 ②5-10년 ③10-20년 ④20년 이상 ⑤태어나면서부터

20. 귀하의 주 소득원은 무엇입니까

- ①농축산업 ②음식,숙박 외 ③유통업 ④기업체 및 공무 ⑤기타()

21. 귀하의 연간 소득은 얼마 정도 되십니까?

- ①2천~3천 ②3천~4천 ③4천~5천 ④5천~6천 ⑤6천이상

22. 귀하께서 지금껏 마을조직에서 어떠한 직책을 맡으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해당되는 보기를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마을이장

Abstract

A Study on Citizen Participation Awareness of Green Village Project Area in Jeju

Rural areas in Korea rapidly declined after industrialization in the 1960s. The population and productivity have decreased, and rural areas in Korea have faced threats to survival due to the free trade agreements (FTAs) with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Thus, a new solution is required for rural areas in Korea now.

Since 2002, the Korean government has attempted to revitalize rural areas through the ‘Green Village’ Project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the ‘Rural Traditional Theme Village’ Project’ by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us far, they have been actively continued. In particular, the Green Village Project has chosen 727 villages nationwide and attracted 8.5 million tourists.

‘Jeoji-ri’ and ‘Cheongsu-ri’,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ere selected as a green village in 2006 and 2007 and then have actively continued the project. Thus, this study selected both villages as a sample area and analyzed and compared the awareness of ‘Green Village’ in the two village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perception gap among local residents on rural tourism development and to find a method to activat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in rural tourism development.

This study compared the local residents’ awareness of ‘Green Village’ in ‘Jeoji-ri’ and ‘Cheongsu-ri’, Hangyeong-myeon in Jeju Province which was

chosen as a case study area.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local residents in expectation. In expectation of the Green Village project, 54% and 44% of the local residents in 'Jeoji-ri' and 'Cheongsu-ri' responded that economically and culturally developed.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wareness level, participation level in the meeting, awareness of activation plan, and participation and role in the projects.

Second, 'Jeoji-ri' and 'Cheongsu-ri' had 12,670 and 4,469 visitors a year (as of 2013), and visitors to Jeoji-ri was three times as many as those to Cheongsu-ri. It is considered that this was not because of perception differences between local residents but because of external factors such as village resources and experience programs.

Third, with regard to the question about the activation plan for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Green Village Project, the respondents in Cheongsu-ri evenly showed various opinions such as developing an appreciation for rural tourism by touring advanced rural areas (44%), receiving education of overall rural tourism marketing (13%) and receiving active government support (30%). In other words, it will be possible to achieve activation of the Green Village Project only if government support is in harmony with the education and tour for local residents.

감사의 글

20년이란 세월을 고향인 한경면 청수리를 떠나 살아오면서 한 순간도 고향을 잊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저와 저의 부모님, 형제 누이들이 살아온 고향인 청수리 평화동을 늘 그리워하면서 살아왔고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 그리운 이들과 함께 할 풍요로운 농촌의 삶을 꿈꾸며 살아 왔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할 고향을 생각하며 준비했기에 단 한 순간도 이 논문을 등한시 할 수 없었고 논문을 준비하는 동안 저의 마음은 늘 고향에 가 있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도움주신 최용복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송재호 교수님, 그리고 임화순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조그만 옷가게를 운영하며 저와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저의 아내와 퇴근 후 도서관으로 가는 아빠에게 어디 가냐고 울며 붙들었던 철 없던 5살 둘째 지훈이, 막내와는 달리 잘 다녀오라며 의젓하게 인사하던 초등학교 2학년 장남 영훈이에게 노력하는 아빠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여줄 수 있어 보람되었고 이 행복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한경면 청수리라는 오지 산간 마을에서도 유달리 교육열이 높았던 부모님이 계셔서 오늘의 영광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이 되면 제일 먼저 자식의 끼니 걱정을 하시고 밤이 되면 자식의 이부자리를 걱정해주시며 한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오신 사랑하는 부모님께 이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08월

문용철 올림